학 훈

1, 순수성의 견지
2, 자주성의 확립
3, 시대정신의 창조
4, 개척자로서의 실천

제대신보

제101호
1971년8월31일
인 쇄
한일인쇄사
☎2931

발행편집겸인쇄인 김 계 용
주 간 양 중 해
편집국장 김 한 준
제주시 용담2동 581
제 대 신 보 사
전화 2125~7 우편번호 590

No. 101 CH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Cheju, Korea August .31 1971.

71학년도 총학생회장단 및 학부장 선출

총학생회장 문 영 찬 (경·3) 군, 부회장 고 숙 희 (가·3)양

1971년 하반기및 1972년 상반기에 총학생회와 법문농·수산학부 학생회를 이끌어갈 회장단이 선출 되었다.

지난 6월23일 대강당에서는 1971학년도 학생회장단을 선출하는 대의원 총회가 열렸다. 55명의 대의원중 3/2인 37명이 참석하여 열린 이날 대의원총회는김수진 전 총학생회장의 인사로 시작되어 학생과장조문부교수의「지성과 양심에 따른 권리행사」를 부탁한다는 인시말에 이어 각후보자의 정견발표에 들어갔는데 기호1번 진춘배(국문·3)군은 대학통합과 체육활동의 강화를 역설하며 한표를 호소했고 기호2번 문 영찬(경영 3)군은 학구적풍토 조성과 대학다운 대학으로서 본대학의 발전 분골쇄신하겠다는 공약으로 팽팽이 맞섰다.

이어 총학생회장단의 선거에 들어갔으나 재적의원 3/2인 37명에서 1명이 모자라는 36명이 투표하여 투표는 무효과 되고 선거는 무기연기 되었다.

이어 6월25일 다시열린대의원총회에서는 출석의원 54명중 문 영찬(경·3)군이 30표 진. 춘배(국·3) 23표 무효 1표로 문영찬군이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으며 총학생회 부회장에는 단일후보인 고숙희(가정·3)양이 46표를 얻어당선되었다.

한편법문학부학생회장선거는 단일후보인 김 창진(경영·3)군이 출석의원 173명중 140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으며 농학부학생회장선거는 지난 6월24일에 대강당과농수산학부 도서관에서 열려 김 홍조(수의.3)후보가현광수(원.3)군이 대결끝에 77대77 동점으로 무기연기 되었다가 7월2일 재선거에서 농학부의 발전의 기수가 되겠다고 역설한 김홍조 군이 88표를 얻어 75표를 얻은 현광수군을 누르고 농학부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이번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가장조용하고 말썽없이 치뤄진 수산학부학생회장 선거는 지난 6월27일어교학과 강의실과 서귀포농수산학부 도서관에서 진행되었는데 강 재철(제조.3)군이 120표 윤 창옥(어로.3)군이 69표를 얻어 강재철군이 51표차이로 압승한 가운데 이번 총학생회장단과 각부학생회장선거는 막을 내렸다.

그리고 이번 총학생회장단선거는 내년부터 실시될 총학생회장단 직접선거로인해 마지막 간접선거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수있다.

한편 이번 학생회장단선거에서 선출된 총학생회및 각학부 회장단은 8월중으로 간부인선을 마치고 9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어1972년 8월31일까지 만 1년동안 본대학 학생회의 제반사업과 업무를 취급처리하게 된다.

「관계기사 2면에」

총학생회장(문 영 찬 군)

부 회 장
(고숙희양)

법문학부 학생회장
(김창진군)

농학부 학생회장
(김홍조군)

수산학부 학생회장
(강재철군)

2학기 등록 및 개강

개 강 : 9월 6일 부터
등 록 : 8월 23 일 ~ 9월 4일

지난 7월 12일부터 시작되었던 하기방학이 9월 4일로 끝나고 9월6일 부터 개강과 동시에 2학기 가시작된다.

교무과에 의하면 2학기 등록은 8월23일 부터 9월4일까지이며 예년과 달리 2차등록은 없게될것 이라 고한다.

한편 등록이 끝나면 9월6일부터 정상적인 수업에 들어가 2학기가 개강되어 캠퍼스는 다시활기를 찾게 될것인데 예년에 비해등록이 빨리 시작됨으로써 타대학과 동일하게 수업을 시작할수 있을것으로 보여 2학기에는 정상적으로강의가 될것으로 보인다

Summer School 열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 본 대학에서는 Summer School(하계 학교)가 열려 학점취득의 길을 열어주었다. 지난 7월12일 방학을 시작한 이래 19일까지 수강신청을 끝내 개강된이번 Summer School은 출석미달로 인하여 학점을취득하지 못한 학생이나 학점 미취득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종전까지는 졸업시까지 재이수로학점을 취득케하던 방법을지향하여올해 부터는 Summer School을 통하여 학점을 취득케 되었는데 학점 미취득 학생에게 학점 취득의 유일한 기회라 할수있다. 약 1주일간에 걸쳐 실시된 Summer School은 각 과목별로 각과 강의실에서담당교수의 강의로 실시되었는데 특히 체육. 교련과목에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고 있음을 볼수 있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강행된 강의는 비지땀을 흘리는 가운데 진행되었는데개중에는 제대로 강의를 하지않아 실망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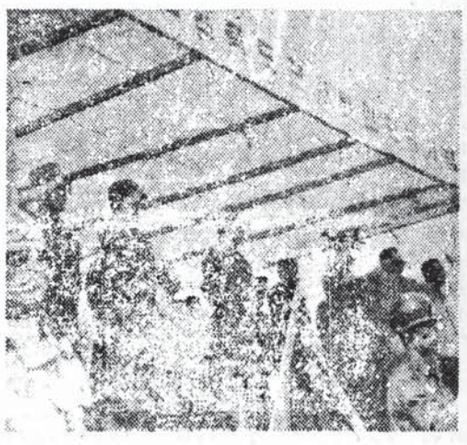
한편 현학순 교무과장은「이번이 처음이니 만치 강력조치를 취하겠다」고 힘주어말하며 학칙 제44조와 48조에따라 처리하겠다고밝혔다. 학칙 제44조와 48조에따르면 「당해 학년에이수해야할 학점을 이수한자가 전공, 필수, 교양과목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시는 학년진급이 안되고 유급된다」고 명시돼 있다.

A·NROTC 병영 훈련

육군 제128학도군사훈련단(단장 대령 오희철)에서는 7월 17일 제주경비대에서 경비대장 김호기중령에게입소 신고를 함으로서 전술학 내무생활등 철저한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앞으로 군 초급장교로서의 자질을 연마키 위해 4주간의 병영훈련에 들어갔다. 이훈련에서 1명의 낙오도 없이화기학, 전술학등 교육을 마치고 8월 14일 황규만준장, 탁병희 군지역사령관, 단장 오희철대령등많은 군관계인사와 김계용학장등 많은 관내 유지들의 참석하에 퇴소식을 갖었는데 이날영예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1등:참모총장상:오권준
2등:2군사령관상:양승립
3등:CAC 사령관상 : 김기택
4등:경비대장상:한재필

한편 해군 ROTC에서도 이보다 앞선 7월 11일부터 8월 7일까지 해병 36대대에서 4주간의 병영훈련을 마침으로서 모든 군사 교육을 습득 했다.



하기 봉사활동 성료

총학생회와 법문학부가주관한 애월면 어도리 하기 봉사활동과 농학부가 주관한 남원면 신예3리 봉사활동및 교내 각클럽이 하기방학을 이용한 농어촌봉사활동이 성공리에 끝을맺었다.

지난 7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10일간에걸쳐 농학부 교학과장 양기철교수의 지도로 대원13명이 참가했던 농학부주관 남제주군남원면 신예2리(속칭 공천포) 봉사활동은 아동문고설치문패달기 가축진료 갑골재배에 대한 강의 식생활개선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가운데 성료되었다.

한편 총학생회와 법문학부가 주관한 북제주군 애월면 어도리 봉사활동은고승희 교수의 지도아래 대원 14명이 참가하여 하계학교설치, 농로보수, 보건진료, 친선체육대회, 변소소독 갑골재배강좌개설, 아후강강습등 여러가지활동을 지난 8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10일동안의 봉사활동을 마쳤다.

그리고 교내 써클인 제주도문제연구회, 신세대, S.C.I, YMCA등에서도 봉사활동을 벌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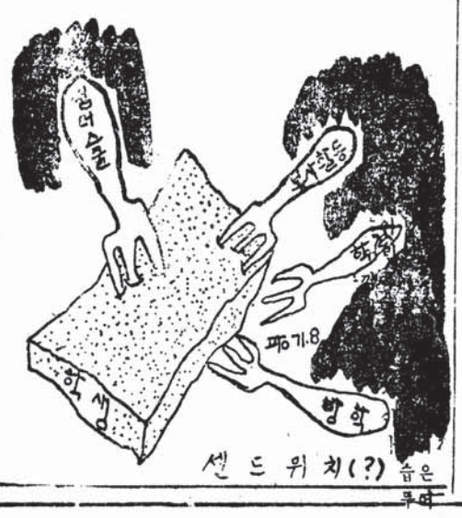
— 관계기사 5면에 —

대학 어학 실험연구협의회 개최

본대학 도서관에서는 지난 8월16~17일 양일간에걸쳐 한국 대학 어학실험연구회(회장: 신상순)가 주최한 제8차 연구협의회가연세대 문리대학장 전형규교수를 비롯한 전국 14개대학 어학연구소장과 영어영문학과장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민학교 영어교육」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 명노근(전남대)교수는 「국민학교 영어의한 실험」을, 박기배(경희대)교수는 「국민학교 외국어 교육과 바이링귀얼리즘」의 테마를 주제로한연구발표가 있었고 「언어실험실의 문제점과 평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제 대 만 평



교육학부 체육학과및 기관학과 학부증설 인가 요청

1972학년도 부터는 본대학에 1개 학부와 2개 학과가 증설될 가망성이 보여 본대학 발전에 밝은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교무과장 현학순 교수에 의하면 본대학에서는 지난 7월 초순 교육학부와 체육교육학과(교육학부), 기관학과(수산학부) 등 1개학부와 2개학과의 증설및 신설 인가신청을 문교부에 제출하여 문교부에서 인가가나는데로 197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아들이게 될것이라고 한다.

새로이 신설될 교육학부는 기존 법문학부에 속해있는 영어교육학과와 수학교육학과및 농학부의 농가정학과를 가정교육학과로하고 신설되는 체육교육학과를 포함시켜 4개학과로 편성할 예정이며 체육교육학과는 예비교사 합격에 제한없이 신입생을 받아들이게 될것이며 수산학부의기관학과는 예비교사 합격자에 한해서만 신입생을 뽑게 되리라 한다.

한편 문교부의 인가가내려 새로 1개학부와 2개학과가 신설될 경우 본대학은 75년경에 종합대학 승격 가망이 짙어 본대학 발전에 밝은전망을 보여줄뿐아니라 본도의 기계공업 육성과 체력증진에 크게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대학은 학부와 학과가 신설되면 4개학부에 15개 학과로 된다.

용두정

◉…남을 위하여 신을 자기 희생시 다는 켜가며 봉사하 것은 고귀한 것이요, 그지없이거룩한 일이라 봐야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개발 도상국가인 경우 이러한 정신은 더욱더 그 빛을 발할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간헐적인의 봉사활동은 최근에 이르러 크게 일어나고 있다. 당국의 계만 보드라도 수백개의 단체가 핵마다 봉사활동으로 낙도나 산간부락등 아직도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덜깬(?) 부락주민들을 계몽하고 있다 한다 — 그 기세는 농히 짚작이 가고도 남는다 봉사활동단은 그들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해놓고 이 시간에도 어민느 무지한 농민, 어민틈에서 비지땀을 흘려가며 기후와 싸우고있다. 이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이 크면 적면간에 그들의 흘린땀은 고귀한 희생정신에 입각한 것이요, 조국근대화의 초석이 되고 있음을거느 누구도 부인하지못할것이다.

◉…본 대학에서도 하기방학에 접어들면서 각 학부, 학회 또는 써클별로 활발하게 봉사활동이 각처에서 행해지고 있다. 본 대학의 이들이 이루어 놓은 각고의 업적이 조국 근대화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볼때 크게 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 시간에도 어느 촌구석에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봉사대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그러나 봉사활동이 우리가 생각하는것 처럼 다관적인 것만은아닌것 같다. 도하 각신문지상이나 「봉사가아니라 오히려 민폐만 끼치고 있다」「이런 봉사는 오히려 없는 편이 낫다…」고 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봉사활동 무용론(無用論)」까지 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의 비난에 우선 비관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지성인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특히 젊은 우리가 더배워야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오늘 고개를 숙여 마지막 웅변 하고 있는 러가지 강좌를 욱 개한 것이요, 그지없이거룩한 일이라 봐야 하겠다. 우리나라처럼 개발 도상국가인 경우 이러한 정신은 더욱더 그 빛을 발할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간헐적인의 봉사활동은 최근에 이르러 크게 일어나고 있다. 당국의 계만 보드라도 수백개의 단체가 핵마다 봉사활동으로 낙도나 산간부락등 아직도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덜깬(?) 부락주민들을 계몽하고 있다 한다 — 그 기세는 농히 짚작이 가고도 남는다 봉사활동단은 그들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해놓고 이 시간에도 어민느 무지한 농민, 어민틈에서 비지땀을 흘려가며 기후와 싸우고있다. 이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이 크면 적면간에 그들의 흘린땀은 고귀한 희생정신에 입각한 것이요, 조국근대화의 초석이 되고 있음을거느 누구도 부인하지못할것이다.

新 着 圖 書 目 錄

	著 者	書 名	出 版 社
46	造船教育研究會	船舶工作	東京海文堂
47	〃	商船設計	〃
48	並川能正	船位誤差論	〃
49	西川廣	小型ヨヲトの作ム方	〃
50	岩佐英介	實用船舶算法	〃
51	〃	造船工作法	〃
52	〃	鋼船構造	사와 〃
53	三浦久吉	鋼船現圖法	만물
54	杉原喜義	理論運用學(基礎力學편)	
55	〃	理論運用學(船舶力學編)	
56	〃	〃 船体	〃
57	立川春重	의장	〃
58	竹田盛和共著	タンカー의장ル運航實務	
59	並川能正	航海數學	〃
60	高橋巖	球面三角ヒそのの解法	〃
61	長谷川健二	航海科算法	〃
62	龍川文雄	海水道航法の研究	東京海文堂
63	渡邊加藤一	特殊航法と航海計畫	〃
64	柴田淑次	海上氣象と天氣圖	〃
65	斎藤錬一	海上氣象學	〃
66	原田精一	海上氣象受驗提要	〃
67	横田利雄	海上衝突豫防法	〃
68	船舶電氣教育研究會	電氣工學實驗(上)	〃
69	〃	〃 (下)	〃
70	남須三	電子通信工學(上卷)	〃
71	西山善忠	燃料油潤滑油	〃
72	小谷信市共著	新しとフ甲板機械	〃
73	森田豊	般用電氣工學	〃
74	平野喜市	般用 〃 機器	〃
75	三好和彦共譯	船舶の集中制御ヒ自動制御	〃
76	渡邊正紀共著	船体溶接法	〃
77	布藤豊路共著	海運實務指針	〃
78	東亞日報社.	東亞年鑑1971	서울東亞日報社
79	姜秉奎	韓國戰爭의政策	서울翰林出版
80	金時泰	쳐다보는돌(金時泰詩集)	現代文學社
81	趙東一	叙事民謠研究	大邱啓明大學
82	감사원사무처	감사판정례집(1970년도)	서울남문각
83	金敢돈	世界思想大全集①佛全	대양서적
84	〃	〃 ②孔子.孟子	〃
85	〃	〃 ③플라톤	〃
86	〃	〃 ④聖書	〃
87	〃	〃 ⑤荀子,韓非子	〃
88	〃	〃 ⑥토마스모어,마키아벨리	
89	〃	〃 ⑦파스칼,데카르트	
90	〃	〃 ⑧루소	〃
91	〃	〃 ⑨키에르케고르, 니체	
92	〃	〃 ⑩러셀, 씨바이쩌	〃

☆…또다시 선거 열풍이 대학가를스…☆
☆…쳐갔다 …☆
☆…앞으로 1년간 본대학 총학생회 또…☆
☆…는 각 학부를 말아 좀더나은 발…☆
☆…전을 위한 안간힘을 써야할 주…☆

당선의 기쁨을

☆…역들이 탄생했다. 그동안 숱한 화제를 남…☆
☆…겼던 그들, 고난과 역경을 디디고 영광의 주…☆
☆…인공으로 탄생한 기쁨을 여기 지상을 통하…☆
☆…여 대학인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다 젊은이…☆
☆…들의 패기와 당선소감을 들어 보기로 한다. …☆

여학생 지위향상에 힘쓸터

총학생회부회장 고 숙 희

결정 되어지기 까지의망설임과 당선 되기까지의안절부절감 속에서 약한 마음은 어쩔줄을 몰라했었다 당선이 된 후에도 어쩌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도모르겠다. 우선적으로 여학생이라는 핸디캡과 처음으로 시도를해보는 일이기에 더욱 당황했었다. 어떤분은 「집에서 밥이나 하지」란 말들을 했을땐, 포기하고싶은 심정이 적지않았다. 이런점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들의 주의는 여자들의외적인 부분활동에 대해서비합리적이고 너무 맹목적으로 부인하려 드는것 같은 기분이 든다. 요새의 유행어인 여성 권리주장을하기위한 견본은 결코 아니고 똑같은 캠퍼스에서생활하는 제주대학생의 일원으로서가 더욱 중요한것이다. 우리는 일방적인 편견을 버리고 제주대학의 위치를 신랄히 파악하고 우리들의 자아를 깨달아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철저한 주관과 객관을 분간 할수있는 진실한 지를 함유한 지성인으로서자아를 성장시켜 나아가서는 본대학을 성장 시키며 정서적 학풍을 조성하는데에는 우리 모두가 끈질긴노력이 필요하다. 본대학은지역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필요되고 지역발달과 지역인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해야해서 문제점을 찾아 해결 할수 있어야겠다. 저는 앞으로의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아래 제주대학의 발돋움에 있는힘을 다할것을다짐함에 끝으로 저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 선배님, 재학생 여러분과학과동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

수산학부 학생회장 강 재 철

먼저 미약한 나에게 수산학부장 당선이라는 영광스런 명예를 안겨주신 학형여러분들과 또 나에게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또 어느곳엘 가든지바다와 연관되어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본도의 특수한 지역적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못하고 있는 본도의 수산업 현황을 볼때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침체된 수산업은 앞으로 제주대학, 본도 유일의 지성 전당이 대학에서 부흥시켜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이런점에서 볼때 본대학 수산학부가 지니는 사명감은 클것이며아러한 수산학부를 위하여내가 지니고 있는 열과 성을 발휘 각오로 수산학부장에 입후보 했던것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나 내가 수산학부장에당선되었고 또 무겁게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선배님들의경우 일년이라는 짧은 임기동안 좀더 성의를 가져주었으면 했던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나에게주어진 임기동안 본 대학수산학부의 발전을 위하여있는 힘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좀더 법문학부와농학부와의 사이에서 서로조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고 싶다는게 나의 자그마한소망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나 재능이 있다 하드라도 학형 여러분의 협조없이는 결코 어떠한 일도 이룰수 없음을 잘알고 있읍니다. 끝으로 펜을 놓으면서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빕니다.

힘찬 젊음으로 학교발전에힘을

법무학부학생회장 김 창 진

유월의 포말속에 대학 Campus가 조용한 고소를 할 때 인간은 아니 젊은 대학생은 용기에찬 힘을발한다. 내 자신이 법문학부 학생회장에 출마했던 것도 젊음의 힘. 즉 일할 수있는 약동의 힘이 내 폐부에서 용솟음쳤기때문에 그리고 학교주변의 어지러움 어딘가 잘못되어버린 캠퍼스생활이 나를 아프게 했고, 슬프게 했기때문에…… 그래서 참다운 대학생을확립할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 싶었던 것이다. 막상출마하고보니 학교 선거의쟁화를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한 구석에 자리하고있음은 어쩔수가 없다. 그래서 저 자신이 내가 바라는 선거쟁화를 하려고 애쓰고 그 결과는 이약한효과에 그친데 어설프기 한이 없다.

결국 단독 후보라는 명목하에 선거를 치루고 거친 유월의 포말이 잔잔했을 때 당선의 기쁨보다. 먼 바다를 관조하듯이 내가 바라는 대학의 이상향때문에 짐이 무겁기만 하다

이왕 당선이 되었으니내가 공약했던것을 착실히이행을 하고 학교가 바라는 것 또 학생이 바라는 것을 잘 반영해서 아름다운 국립 제주대학을 건설하는데 최대의 힘을 발휘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의 기쁨을 저에게 안기어 주신 여러 학생제위께 그리고 성실히 협조해 주신몇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내 임기 동안에 착실히 일할 것을 다시 다짐해 본다.

학형 제위의 채찍질을 바란다

농학부 학생회장 김 홍 조

우리들의 캠퍼스는 여름의 신록속에 온통 푸르름속에 덮여있읍니다. 19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연륜을 쌓아올리는동안 우리 대학은 캠퍼스를 뒤덮은 신록의 푸르름처럼 희망찬 발전을 거듭하여국립종합대학으로서의 발돋음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특히 본도는 타도에 비하여 특수한 지역적, 환경적 조건아래서 감귤, 버섯등을 중심으로한 특용작물과 축산업등 낙농의 낙원으로빛을 발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에 비추어 본 대학의 농학부는본대학의 어느 학부보다도발전할 여지가 충분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그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고 있지않음도 사실인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은 비단 나혼자만이 아니라 본 대학인이면 모두가 느끼는 감정일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청에 발맞추어 모든것이 미약한 내가 농학부장에 출마했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학형여러분의 줄기찬 호응속에서 당선의 영광을 만끽하고 있읍니다. 이제 미숙하나마 내가 농학부장이라는 위치에 당선되고 보니 자랑스런 마음보다는 보다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을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본대학 농학부가 처한 중차대한 사명감이 우선 절실하게 나의 어깨를 누르고 한편으로는 좀더 나은 농학부건설이라는 억센 투지가 물결처럼 출렁이고 있읍니다. 내가 입후보 하던 당시에 학형들에게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하고 또제주대학의 농학부에서 벗어나 제주도의 농학부, 아니 세계속의농학부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겠읍니다. 내재임기간중 학형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채찍질을 바라마지 않읍니다.

이달에 만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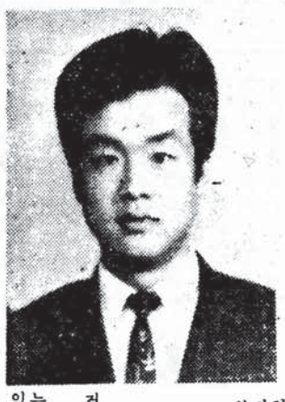
총학생회장 문 영 찬 (경.3)군

본보 101호 이달에 만난 사람에서는 지난 6월25일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유권자 65명중 30표를 얻어 당선된 총학생회장 문 영찬군을 찾아 선거에 관한 뒷얘기와 앞으로 학생회의활동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 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선후배 제위및 교수님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고 싶다. 항상 인간은 도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로서는감히 제주대학 학생회에 도전하면서 나의 열과 성의를다해 힘껏 그리고 남에게 제약을 받지 않고 소신껏 일해보겠다는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고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지금은 담담한 심정으로 구상했던일을 처리하기 위해 몸과마음을 정리하는 기분이다」라고 소담히 웃으며 말한다.

이번 총학생회장선은 사실상 간접선거로서는 마지막이었고 여러가지 의미로 중요한 선거였었는데 선거기간중의 고충에 대해서 그는 얼굴을 붉히며「여러학형의 협조로 별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으나 일부 몰지각한 유권자들이 과(科)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행동하거나 일신의 영달을 위한 도구로서 대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것을 볼때무척 마음 아팠다. 그리고선거기간중에 약간의불상사가 있어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것을 깊이 사과드리며 우리대학을 비롯하여 전국 각 대학의 선거풍토가 하루빨리 개선되어 지성인다운 선거, 사회에모범적인 선거가 이루어 졌으면 한다」고 힘주어 말하며 대학생은사회의 기간이며모범적 존재이어야 한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고 역설한다 총학생회 간부인선에 관해서는아직 완전히 결정을 못보았으며빨리인선하여 개학과 동시에 학생회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학생화의 활동방향과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공약대로 학생과 교수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가교로서의 학생회로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학생들이 주관하는 학술회나 클럽활동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하면서 겉으로만 들뜬 학생회 활동이나 사업이 아니고 명실상부하게 대학의 지성들이 하는 활동답게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약속하고 학구적 풍토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끝으로 학생회의 기능정상화와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과 교수님 그리고 학교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란다고 말하는 그는 문태효 (42·제주시 용담1동)씨의 3남3녀중의 장남으로써 제주제일중·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현재 경영과 3학년에 재학중이다.

또한그는 본대학 써클의 하나인 Canoe 제2대 회장을 역임하였고 재직중 많은공적을 남겨 지금도 타 써클에 뒤지지 않는 확고한 이념을 가지게 했다.

그의 취미역시, 써클활동, 스포오츠, 등산등 다양하여 활동적인 인물로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철>……

써클동정

◎…하기방학을 맞아 교내 각 써클에서는 자체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활발한활동을 벌여 그동안 침체된 활동에서 벗어나 활기찬활동으로 여러가지 성과를올렸다. 20여개의 각 써클마다 봉사활동, 수련대회, 캠핑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는데 봉사활동은 제주도문제 연구회, 제대 YMCA S.C.I, 신세대 등에서벌였다. 제주도 문제연구회(회장: 고숙희)에서는 애월면 하가리에서, 제대 YMCA(회장: 고태실)는 조천면 신흥리에서 S.C.I(회장: 양정국)에서는 광주 무등산에서 신세대(회장: 김광수)는 구좌면 송당리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벌여 그곳 주민들로부터칭송을 받았다.

한편 제대 홍사단 아카데미에서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로 함덕해수욕장에서 다수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하기 수련대회를 가졌다.

학생회 새 임원단의 출범에 부침

社說

연례적인 일이라고는하겠으나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로 개학하는 2학기부터는 학내의 총학생회를 비롯하여 학년별의 학생회장단을 비롯 일체의 임원들이 바뀌고, 새로운 임원단에 의하여모든 기구가 운영하게 되어있다.

이 때를 즈음하여 학생회의 바람직한 운영이란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지고 새로 출범하게 되는 새 임원들의 전투를 빌며, 아울러 맡은바 사명과 소임을 유감 없이 발휘하여주기를 당부하여 마지않는다.

전체 학생들의 학생회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보면 선거에서 각종 활동에 이르기까지 바람직한 조화와 발전의 자세를 잃은 양극으로 향하고있는 경향이 짙지 않은가 저윽이 우려가된다

기탄없이 말한다면, 해다다선거 과정에서보인입후보자나 일부 학생들의 태도는 지나치게 학생회의 일에 열중한 나머지 아름답지못한 선거의 폐습을 빚어내는 정도이나, 그 밖의 대다수의 학생들, 특히 학업에 정진하노라 자부하고있는 학생들은 흔히 학생회일에 무관심하며 불관여하고 불참하는 경향이 없지 않음을 우리는 볼수 있다.

이러한 양극단의 폐단은 선거기간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일년간의 학생생활 전체에도 같은 풍조가 흐르는 것 같다. 학생회에서는 관에 박힌듯한 연중행사, 진취향상도없는 연중행사를계획하고 실행하기가 일수이고, 이러한 행사는 많은 학우에게 깊은 관심과 기대를 주지 못하기가 일수였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대학가의 공통된 풍조이고 우리 제주대학도 예외일 수는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새학기부터 출범하게되는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학부학생회의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은 새로운 출범에 앞서,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학생회의 행사와진로에 대하여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 예산이 있으니까 행사를 해야지 하는 식의 생각은 불식해야하며 행사를 위한 행사로 지양해야 좋을것같다. 예산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어서 의욕대로 이룰 수 없음도 사실이라 하겠으나 적은예산으로 해내어야하는 자그만한 행사라하드라도좀 더 대학다운 대학의 행사를. 지성인의 자세나학구적인 진로또는 이질적이 아닌 일들이 계획되었으면 좋겠다. 일반학생들의 관심도 없는 억지행사를 되풀이하기 보다는 차라리 학회활동을뒷받침 해준다든가, 그 밖에 대학 안에서 전개되고있는 여러 뜻 있는사업들을 후원해주는 길은 어떨까?

물론 우리는 학생회활동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그들의 활동을 불신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도 아니다. 전체학생들의 관심과 기대와 참여 속에서 학생회의 모든 활동이 전개되기를 희구할 따름이며, 지성사회의 의의를상실하게 되겠기에 만이다

전체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참여하게 한다는 것은 보람있는 일이나행사를 해야한다는 것이며 보람있는 일이란 대학생활에 있어서 가치있는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보다는 오히려 내일을 위하여 할일들을 계획해야된다는 것이요, 이러기 위해서는지성사회의 중지를 모아신중한 검토를 거쳐 충분한 계획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과거의 역대 학생회 임원들도 많이 느꼈을 것이고 노력을 경주해보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지난날의 자취에서 우리는 바람직한 일을 거의 기대해보지 못하였으며,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대학학생회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대학에 있어서도 공통된 통폐였다고 생각되기에 여기에 언급해두는 터이다,

새학기부터 새로 출범하는 총학생회, 학부별학생회의 모든 임원들은과거 선배들이 걸어온 자취를 냉정히 성찰하여이를 거울로 삼고, 지성인으로서의 슬기를 다하여 창의성있는 새출발이 있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기자석

◎…매년 여름이 되면 본도를 찾아드는 등산객 및 관광객이 많아 여러모로 본도에는 이익이되고있는것은 사실인데 이제는 일부몰지각한 등산객들이 대학구내에 텐트를 치고 기식하는 사례가 허다하여 보는이의눈쌀을 찌프리게하고있어 말썽……

학생들이 본대학을 찾아오는 것은 반갑고 고마운 일이지만 신성한학원을 유흥장이나 등산을 위한 전진기지로 생각하는 육지부학생들이 양식이 아쉽기만하다.

학교당국에서는 선심을 쓰느라 그런지 본도 등반객유치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학교를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은 잊지 말아야 할텐데 보고도 못본척 꿀먹은 벙어리,

모두 정신 차립시다요

……< 정 >

◎…교육학부 신설 소문이 방학중에 파다하게 퍼져 일선 취재기자들을 신바람이 나게 만들고있는데…지난 52년 도립 2년제 초급대학에서 오늘날 제주도의 자랑거리가 될만큼 훌륭한 건물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알려진사실인데……헌데 실인 즉 내부시설은 한심하기 짝이없어 빛좋은 개살구격이라 보는 이로 하여금 실소를 금치못하게 하고있어 아연실색, 더군다나 화장실은 고장일변이고 시설이 엉망이라 별로 마음이 내키질 않는다고…… 특히 요즈음은 여름철이라 파리가 일고 악취가 풍겨 학교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주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더망신당하기전에 손좀 봐두는게…뿐 만아니라 개학을 앞둔 강의실 정비가 제대로 되질 않고 있는데 비만 오면 비가 새는 본관 2층강의실들이 빨리 보수 되어야 겠다

방학중 캠퍼스는 숙박업소가 돼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교육학부가 신설된다는 것은 역시 흐뭇한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모 기자왈「요런 취재거리야 취재할 힘이부쩍 붙어난다」고. 아무튼 갈치국부터 마시는 격이 아닐지 당국이 좀더 강력한 뒷받침이 필요한것이라 하…< 광 >

◎…대학본부의 건물은 이제 한산하기만 하던교정이 Summer School개강과 함께 더 밝아진듯 했는데 아!글쎄 한편에서는 담을 흘려가며 강의에 몰두하는데 한쪽에서는 아예 강의조차 하지않아 학생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나 수강신청은 하라 해놓고 어찌된 일인지 교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하면 모과목은 Summer School을 Tea Room에서 했다는 우수운 이야기 거리를빚어냈다고—. 아무튼 교수님네들 정신좀 차려야 겠읍니다요.

◎1학기 학점취득통지서와 함께 2학기등록금고지서가 각 학생가정에 우송됐다 그런데 이외로 교육과(수학교육과·영어교육과)학생들의 의아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문교부에서 지난 5월에 지방대학 교육과재학생에게는 2학기부터 수업료를 면제한다고 예시를 했는데 실천이 되지 않았다. 학교당국에서는 문교부의 지시가 대내와야만 구체적인 방안을 알수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울산 전신

◎……대학내의 선거는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더욱 타락해가는것만 같다. 본 대학에서도 선거열풍이 캠퍼스를 휩쓸고 지났다' 선거에는 으레—기성세대의선거가 그렇듯이—막걸리통이 따르게 마련인 모양이다. 그것만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난동사건이 뒤따르고 흡사 기성세대의 부정선거의 타락상을 그대로 이식해놓는것은 어찌된 셈인지…가장 정의에 불타야할우리의 피가 탁해져가고있는것은 어처구니 없는일이다. 특히 데모로 부정에 항거하는 우리들이저지른 일이라는데 그저아연할 뿐이다. 모든 학사님들이여! 모두 가슴에손을 얹고 생각하고 반성해 봅시다.

◎……방학중에 응당 개관되어야 할 교내 도서관이 당국의 무성의 때문인지, 어쨌든 열리지않고 있어 향학열에 불타는 대학인들의 통렬한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글쎄, 그 이유를 들어보니 방학 처음에는그런대로 매일 도서관문이 열리더니 막바지에 이를수록 더욱더 도서관문이 꼭닫혀 더운 날씨에 모처럼 옵긴 학생들의 발걸음을 되돌리고있다고불평을 늘어놓는데…모과 K군왈「이건 도서관이없는 것만 같지않다」고이래서야 되겠느냐고 기염이 대단! 아무튼 당국과의 시급한 조처와 반성이 있을 것 같아 몇자 적어본다.

◎…한산하기만 하던교정이 Summer School개강과 함께 더 밝아진듯 했는데 아!글쎄 한편에서는 담을 흘려가며 강의에 몰두하는데 한쪽에서는 아예 강의조차 하지않아 학생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나 수강신청은 하라 해놓고 어찌된 일인지 교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하면 모과목은 Summer School을 Tea Room에서 했다는 우수운 이야기 거리를빚어냈다고—. 아무튼 교수님네들 정신좀 차려야 겠읍니다요.

◎1학기 학점취득통지서와 함께 2학기등록금고지서가 각 학생가정에 우송됐다 그런데 이외로 교육과(수학교육과·영어교육과)학생들의 의아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문교부에서 지난 5월에 지방대학 교육과재학생에게는 2학기부터 수업료를 면제한다고 예시를 했는데 실천이 되지 않았다. 학교당국에서는 문교부의 지시가 대내와야만 구체적인 방안을 알수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 대학생 여러분에게 필요한

교재및 참고 서적 구비

대 신 서 점

각종서적
문예서적
교과서적 } 은 제주은행앞 대신서점으로

제주시 오현로 제주은행 앞

가 정 교 사 알 선

본 제주대학 학생지도 연구소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가정교사 및 기타」 알맞는 일을 할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오니 원하시는 분들은 본 연구소에 학생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 제 주 시 전 화 2125—2126번
※ 서 귀 포 농 학 부 전화 124번 수 산 학 부 전 화 704번

1971년 8월3일

제주대학 학생지도 연구소

학생 논단 농작물의 병충해와 기상

농학과4년 고 동 훈

○농작물의 병충해와 기상
1. 서 론
2. 농작물의 병해발생과 기상
3. 농작물의 충해발생과 기상
4. 발생 예찰과 조기 방제
5. 결 론

1. 서론

병충해에대한 농작물의피해는상당히 큰것이고 때로는 병충해의 대 발생때문에 광대한 지역이 수확에 지장을 초래하여 예상량을 번복하여 양곡을 외국으로 도입해야 되는 실정에 있다. 또 어느기방에 있어서는 어느 농작물의 풍흉이 전적으로 병충해에 기인하며 타 재배조건이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재배할수 없는일도있다. 이러한 병충해의 발생원인에 대하여서 조사하여보면 기상상태가직접또는 간접으로 관련되여 있을때가 많다. 따라서 이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고 그러한 연구결과에 의하여 병충해를방제하거나 피해를 경감할수가 있다.

2. 농작물의 병해 발생과 기상

기상에 대하여 유발되는 농작물의 병해를 총칭하여 농작물의 기상병이라한다. 농작물의 기상병은 기상의 그 병해의 주인이 되느냐 유인이 되느냐에따라 두종으로 구별하게된다. 즉 기상이 직접 농작물에 이화학적인 장해를 줄때와 기상이 유인이되며 농작물이 어느 병원균에 의하여 침범될때가 있으며 전자를작물비기생 후자를 작물기생 기상병이라하고 후자를 작물 기생 기상병이리 말한다. 작물 비기생 기상병은 단지 기상에의한 피해와구별하기 어렵고 그러한 기상적 상해를 병해로서 인정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대하여서는 고래로 부터 어러가지로 논의가 되어왔다 작물 비기생 기상병은 간혹 작물 기생 기상병의유인이 될때가 있다. 작물비기생 기상병과 작물 기생 기상병과의 현저한 차이는 전자는 비전염성인 병해인데 대하여 후자는 전염성의 병해인것이다. 작물 비기생 기상병및 작물기생기상병을 병해의 원인에따라 분류하면 다음과같다.

1) 작물 기생 기상병의 분류
a) 기상의 물리적인 작용에 기인하는 병해
가) 바람에 기인하는 병해
나) 우박에 기인하는 병해
다) 천둥에 기인하는 병해
b) 이상한 기상에 기인하는 병해
가) 고온에 기인하는 병해
나) 저온에 기인하는 병해
다) 광해
2) 작물 기생 기상병의 분류
a) 작물 비기생 기상병이 유인되여 발생한 병해
b) 기상이 불순에 기인하는 병해
c) 병원균의 번식에 호적한 기상상태에 의하여 발생하는 병해
d) 작물체가 병원균의 번식에 좋은 발육 상태를 나타내는 기상상태에 놓이므로서 발생하는 병해
3) 주요 농작물의 병해 발생과 기상과의 관계
a) 벼의 도열병
다) 다우에 기인하는 병해
라) 마습에 기인하는 병해
마) 과우에 기인하는 병해
바) 과조에 기인하는 병해
c) 기상이 토양상태에 영향을 주어 그결과 생기는 병해
가) 기상이 토양중의영향 물질에 영향을 주어 그결과 발생하는 병해
나) 기상이 토양중의 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주어 그결과 발생하는 병해
d) 기상이 화학적 작용에 영향되여 발생하는 병해
가) 약해
나) 매연의 해

도열병은 이상한 환경에 수반되여 발생하는 병해이고 발생하는 때는 각종의 기상요소가 관계된다. 도열병균의 발생에대한 최적 온도는 25.~30°c의 비교적 고온이나 벼의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은 기온이 높고 과우다조 일때보다 기온이 낮고 다우과조일때가 약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열병균의 적온보다 낮을때에 심히 발생되는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관개수나 토양 온도가 과냉할때도 도열병이 발생한다. 저온인 관개수가토양 온도가 과냉할때도도열병이 발생한다. 저온인 관개수가 답에 들어가는 수구에서 발생하는일이많다 .강우가 많고 습윤할때 또는 강우가 심히적처 고온. 다우, 과조일때 7日~8日경의 고온 다우이거나 저온 다우일때많이 발생하는것을 알수있다.

3. 농작물의 충해 발생과 기상

농작물의 충해 발생상태는 그종류에 따라 틀린다 어느 해충은 1년을 주기로 하여 발생이 빈번이 나타나나 때로는 이상한 대발생을 한다. 이와같이 농작물 충해의 발생의 消長이 나타나며 이원인은 여러가지로 생각되나 기상상태도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여 있는것만은 거의 의심할여지가 없다. 해충이 이상하게 많이 발생하면 농작물은 지대한 피해를 받으며 심할때는 수확이 전연 될수없는 상태까지 된다. 원래 해충의 대발생은 대체적으로 저온은 충해의 번식에 불리하다. 온대 지방보다 일던중 온도가 높은 열대 지방에 해충이 많은것과 또는 따뜻한 겨울후에 해충이 많은것도 이때문이다. 한편 온화하고 다습할때에는 비교적 해충의 식물이 많고 밀집하여지고 해충의 번식이 심하다. 다음에 해충의 이동에 대한 기상의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후가 해충의 이동에 유리한 상태에 있고 이것이 직접 해충의 이동량을 지배할때와 기상상태의 불량으로 어느 지역에 있어서 해충의 식물이 부족될때 해충은 식물을 구하기위하여 타지역에 이동하는 등의 기상의 간접적인 영향에 따르는 때가있다. 곤충의 이동과 직접간접적인 가장 밀접한 관계가있는 기상요소는 바람이고 바람에 의하여몇1,000㎞라는 원거리까지 곤충이운반 될때도 있다. 또는 초목이 고사하게되면 곤충의식물이 적어지기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며 곤충의기상상태가 그 발생과 밀접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것에 대하여 살펴본다.

a) 명충

명충은 도작에 가장 커다란 피해를 주는 해충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이화 명충의 발생이 심하고 남부지방에서는 삼화명충이 발생하는 일도 간혹 있다. 이러한 명충의 발생지역은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있는데 삼화 명충의 발생한계는 동계의 최저기온의 극치가 (−1) 3.5°c의 등온선으로 표시된다고 한다. 또한 이화명충도 기온과 밀접한관계가있으며 동계의 기온이 높을수록 그 발생기는 빠르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있다. 또발생기는 발생전 10일간가량 최성기는 그전 5일간 가량 사이의 기온과 밀접한 관계가있다.

4. 발생 예찰과 조기 방제

해충의 발생은 양에 있어서는 시기에 있어서 매해 변동하는 사례가 많다 이화명나방과같이 매년 발생하는 양이 별 변동이없는해충이라도 발생이 많은해에는 적은 해의 수배~수십배 발생하고 발생 최성기도 해에 따라서 1주 10여일의 차가 생기게 된다' 이와같이 해충의 발생하는 상태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해충의 발생상태를 짐작 할수 있다면 여러모로 편리한것이다. 또한 해충의발생시기의 지속은 딴생물 현상의 지속을 주의깊게 관찰함으로서 예찰할수도 있다. 해충의 발생을 가급적 빨리발견하여 곧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충을 방제하는 목적이 해충을 많이 죽이는 것이아니라 피해를 경감시키는데 있는것이니 피해가 난후에 해충을 아무리 많이 잡았댓자 의의가 없는것이다. 뿐만아니라 약제도 절약되고 또 멸구같은것은 단시일내에 대발생하므로 더욱 빨리 발견하여야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해충이이미 성숙하여 피해가 현저할때 발견되여 당황하는경우가 더 많은것이다. 그러나 극단의 조기 구제는해충에 따라서 문제가 다르다. 볏논에 멸구가 발생했을때 한구루에 1~2 마리가 붙어있다고해서 곧약을 뿌리는 것보다 어느정도(가령 7~8마리) 발생했을때 뿌리는것이 상례이다 물론 그동안의 형세도 살피고 앞으로의 기상관계도 예측하여 알맞는 시기에약을 뿌리게 되는 것이다. 이화 명나방도 너무 빠르게 약을 뿌리면 그후에나온것들은 그약제로 효과를 못보게되니 발생형세를 잘살펴서 임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시기에 약을 뿌린다

5. 결 론

위와같이 농작물을 재배하는데있어서 병충해의 발생이 기상과 밀접하게 관계됨을 인식할때 통계적인 기상자료와 내년발생 경향등을 비교하여 농작물 관리하는데 적극 신경을 써야할것이다. 또한 병충해는 발생이 초기에는 부분적으로 발생되나 기하급수적으로 발생이되기때문에 공동방제가 필요하며 기상에요인한 감염경로등을 알개의 농가에서 하는것보담 농사지도기관인 여러기관에서각각 연구하여 조기방제와발생예찰을 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될것이다. 또한 병충해 발생에대한 기상조건이 호적조건으로서 기상이 이루어질경우에는 어떠한 약제를 이용하는데도시기적으로 또는 희석농도를 잘 고려하여 살성함으로서 구제하는데 도움을줄것이며 또한 그 발생시기의 기상에 적합한 천적의선택등에 고려하여 어떤기상상태 하에서 충이 대발생을 하면 그것과 더불어 천적역시 왕성한 번식력과 먹이를 먹을 수있도록 연구하는것이 필요하다.

기상 상태 연구가 급선무

농작물 병충해 발생과 기상과는 밀접

올바른 현대인의 상(像)

20세기의 고도로 발달한 과학문명은 지나친메카니즘과 물질문명의 만개, 에고이즘의 조성, 유니버살니즘등을 형성하여 현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애착심보다는 우울증과 공포감에 사로잡힌「방황적 사고의 정신병 환자」로둔갑시켜 사상적 호흡의빈곤과 국가의 민족의식을 상실한「조국과 민족을잃어버린 반면적 사생아」로 추락시켰다고해도 과언은 아닐것이다.

현대인은 현대속에 살고있으면서도 그 카테고리에 너무 얽매어 퇴폐화되어 가고 있으며 인간의 가장 인간 다운 내면성마저도 상실해버린채「정신적 사상의 결핍증 환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속에서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볼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올바른 현대인의 상(像)을 찾아 분주하게 마치 다람쥐 챗바퀴 도는식의 걸맞지 않은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고볼때 현대인은 올바른 현대인의 상(像)을 구명(求明)해 볼 필요성을절감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현대인이 희구(希求)하는 올바른 현대인상은 무엇일까?

그것은 확고한 사상의 소유자 일 것이다. 확실히 현대인은 사상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다. 현대인의 지닌 지성과 지혜는 얄팍한 주간지나 대스컴에 의한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얄팍한 지식은 현대인을 주체성이 결여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성인은 생각하면서살아가는 자요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곧 지성인일진대 현대인은 지성인 임을 자처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사색이 없는 지성인들인 것이다.

소크라테스는「성찰(省察)없는 생활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고 사색과 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현대인은 현대문명의 다채로운 감각적 자극으로 인하여 말초신경을 자극당하여 감각적 향락에 도취되어버리고 말았다.

「현대인은 무사상이다 그리고 현대인은 자기의 사상을 갖지 않는다. 그는 진리에 대한 감각도 잃어버렸고 진리를 희구하는 마음도 상실하고그저 무사상인채 취생몽사하여 여러가지 의견사의를 떠다니고 있다. 사색을 포기하는 것은 정신적 파산의 선고나 다름없다. 현대는 사색의 멸시와 사색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차 있다. 현대인은 매일매일의 허다한 지식에 압도되어 정신적 자산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슈바이처 박사는 갈파 했듯이 현대는 나의 사상이 아닌 남의 사상으로 채워진 현대인으로 들끓고 있고 주체성이결여된 대인이 무리를 이루어 부동(浮動)하고있다. 이제 우리는 갑다한 지식의 노예가 되지말고 생활에 통일과 질서와조화를 주는 지혜의 소유가 되여야겠다.

「대개의 인간은 바람에 날려 빙글빙글 맴돌고 비틀거리며 방황하여 땅에 떨어지는 나뭇잎과 흡사하다. 그러나 별을닮은 인간도 있다. 그들은 확고한 궤도를 걷고, 어떤 광풍도 그들에게는닿지 않는다. 그들 자신의 내부에 자기의 법칙과 자기의 궤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헤스세는 그의 저서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사상적으로 방황하는 현대에 있어 우리가 진실로 바라는 인간상은 확고한 사상을지닌 그러한 인간인 것이라고 본다.

하기봉사활동과 그 성과

천포)
지도교수 : 양 기천
참가인원 : 13명 (남9명 여4명)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하기방학을 이용한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개되어주민들의 칭송을 한몸에받으며 많은 성과를 남겼다.

본대학에서도 학생회가 주관한 두개의 봉사단과 교내 클럽에서 4개의 봉사단팀이 조직되어 도내의 산간벽지와 어촌에서 봉사활동을 벌여 많은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서 봉사활동을 벌인 각 봉사단의 봉사내용과 문제점을 밝혀 차기 봉사활동에 도움을줄 수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부족했던 점들을살펴보기로 한다.

(1) 총학생회의 봉사활동
때 : 1971년 8월1일~10일 (10일간)
곳 : 북제주군 애월면 봉성리(일명:어도)
지도교수 : 고 승희
참가인원 : 12명 (남8명 여4명)

애월면 소재지에서약 5㎞떨어진 중산간 부락인 어도리에 봉사활동을 나간 총학생회 봉사활동반은 어도국민학교에 숙소를 정하고 가로(街路)청소, 농로보수, 변소소독실시, 문패달기, 보건진료 문화영화상영등을 실시한 이외에도 1인 발판을 열어 동네 [illegible]들의 머리를 손수 주기도하고 동네 [illegible]을 위한 건전한 리 [illegible]선강습을 벌여 [illegible]년들의 여가선용을 [illegible] 고 특히 여학생들 [illegible] 여학생및 부녀자 [illegible] 베푼 아후강 [illegible] 대단한 성과를 거 [illegible] 밝은 전망을 보이 [illegible] 였으며 감귤등 특용작 [illegible] 의임 지적 조건이 [illegible] 마 을을위해 감귤 [illegible] 권 위자이신 본대 [illegible] 훈은 교수의 감귤지 [illegible] 주민들에게 [illegible] 을 주기도 했다. 총학생회 봉사단이 계학교를 설치하여 방학에 집에서 놀 초·중학생에게 여재미있는 놀이와 설치하고 백일장등 최하여 어린아이들에게아름다운 마음씨를 심어주기에 주력하여 주민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친선을위해 노래자랑과 친선 체육대회를 열어 주민들과의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

(2) 농학부 봉사활동
때 : 1971년 7월22~7월31일 (10일간)
곳 : 남제주군 남원면 신예2리 (일명: 공천포)

남제주군의 어촌인 공천포에 봉사활동을 나간 농학부 봉사단은 마을에 「권농대」라는 정자(5평)를 만들어 주고, 마을문패달기와 국기달기운동 마을문고를 설치하여 감귤재배등 서적 100여권을 기증하였으며 2㎞에 이르는 도로를 보수하기도하고 돈콜레라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돼지 120마리 개 50마리) 무료로 가축을진료해주기도 했고 서귀포 청년회의소의 협조로 주민 150여명에 대해 내과 치과, 소아과등에 대해의료진료를 베풀기도 했다 특히 감귤재배와 병충해에 대한 강좌및 질의응답시간을 가져 주민들에게 특종작물재배에 관한 지식을 전달시켜 주었으며 부녀자를 중심으로한 식생활 개선및 이생활에 대한 강의및 실습등으로 호평을 받았고 문화영화및 극영화(쌀)를 상영하기도 했다.

(3) 각클럽 봉사활동
학생회가 주관하는 봉사활동이외에 교내 써클인 제주도 문제연구회, 신세대, S.C.I, 제대Y.M.C.A. 등에서도 봉사활동을 벌였다.

제주도문제연구회에서는 7월 19일부터 24일까지애월면 하가리에서 김 영돈 교수의 지도로 대원11명이 봉사활동과 학술자료 조사를 했고 신세대에서는 이 희주교수의 지도로구좌면 송당리에서, S.C.I는 7월20일부터 서라남도 광주에서 그리고 Y.M.C.A는 조천면 홍리에서 Work Camp를 열어 봉사활동을 했다.

이상의 본대학 하기봉사활동의 내용과 성과에서 본바와 같이 봉사활동의 개념과 의의가 점차 변질되어 가고 있으며 문제점도 많이 발견되어 그 개선책이 시급함을 알수있다.

어느 봉사단이나 대동소이(大同小異)한 내용은 재삼고려해 불만한일이며 봉사활동의 개념이 육체적 활동에서 정신적 계몽과 생활개선등으로전환되고 있음에 비추어봉사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느끼고 실천할수 있는내용의 봉사활동이아쉽다.

특히 부녀자와 청년들에게 여가선용과 농한기 작부업을 위한 기술지도등이 절실히 필요하며한번의 봉사보다는 계속적인 상호협조와 연락으로 봉사활동의 성과가 뚜렷이 나타날때까지 제방면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봉사활동을 나간 봉사대와 주민 그리고행정당국의 협조가중요하며 봉사단원의 정신적 자세도 큰 문제일것이다. 이러한 제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각 시답사와 장기적인 계획 수립등으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며 따라서 봉사단원을 위해 사전 오리엔테이션도 필요한 것이다.

— K —

사 고

제대신보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9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대 상 : 본 대학 1학년 재학생 전원
시험과목 : 논문, 일반상식, 영어, 기사작성
원서마감 : 1971년 9월 15일
지원서류 : 이력서, 성적증명서, 지원서 (각1통)
사진기자, 삽화기자 특채

1971년 8월
제 대 신 보 사

미를 창조하는
미 조 라 사
◆ 미조라사에서는 서울 일류 재단 기술자를 초빙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무슨 형이든 성심껏 거 드리고 있읍니다
※ 자연적인 멋 아이비형
금년의 유행 킨디 네팔형
남자다운 멋 올드 록형
※ 추등복지 대량입하!!
제주시 한일은행앞 미조라사를 꼭 찾아 주십시요

제주의 멋을 한눈으로!!
제주명물·토산물품
돌하르방집
가장 싼 값으로
무엇이든 쇼핑하고
제주의 토속미를
안겨 드립니다
제주시 한일은행옆 돌하르방집 TEL 4294

1971 학년도 제2학기 교과 과정표

1 학년 (일반교양과목)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비 고
교양	체 육		1	전학과
〃	교 련		1	〃
〃	국민윤리	김인제	2	〃
〃	국어 A	현용준, 김영돈	2	〃
〃	국어 B	양중해	1	〃
〃	영어 A(2)		3	전학과중택1과목
〃	영어 B(1)			
〃	독어	한재홍	3	
〃	불어	고원희	3	
〃	중국어	부윤조	3	
〃	문화사	김종업	3	법, 경, 국, 영, 수
〃	자연과학	박행신	3	법, 경, 국, 영, 농 축, 수의
〃	철 학	이희주	3	농, 수 산학부

전공 및 선택과목

법학과 1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전공	법학통론	김두희	2	택1과목
선택	사회학	한창영	3	
〃	정치학	김광택	3	
〃	경제학	문창우	3	택1과목
〃	심리학	고명규	3	
〃	사회사상사	함순택	3	

경영학과 1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전공	경영수학	김문판	3
선택	사회학	강대원	2
〃	타자실습	김법국	2

국어 국문학과 1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선택	인류학	현용준	2
〃	국어정서법	강근보	2
〃	사회학	강대원	2

영어 교육과 1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전공	교육사	이순형	2	
〃	교육사회학	현인홍	2	
선택	언어학서설	김순택	3	택1과목
〃	미문학강독	양상익	3	
〃	영국사	김필호	3	

수학 교육과 1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전공	교육사	이순형	2
〃	교육사회학	현인홍	3
〃	대수연습	김영신	1
〃	기 하	한철순	1
〃	미적분연습	고중석	1
선택	한 문	부윤조	2

농학과 1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선택	수 학	고중석	2
〃	화 학	김기환	2
〃	생물학	김순찬	2

원예학과 1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선택	생물학	박정덕	2
〃	식물학	〃	2
〃	원예학개론	정희준	3
〃	수 학	고중석	2

축산학과 1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선택	수 학	고중석	2
〃	생물학	김오남	2
〃	축산학개론	김승찬	2

수의학과 1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전공	생물학	김오남	2
〃	가축해부학	이정택	3

농가경학과 1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선택	가정음악	배영호	1
〃	경제원론	문창우	2
〃	생물학		2
〃	동물학		2
〃	영양상담		2

어로학과 1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선택	수 학	한철순	2
〃	농 리	백기훈	2
〃	수산제조		2
〃	동계학	한철순	2
〃	생 물		2

제조, 증식 1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선택	수 학	김영신	2
〃	생 물	김창현	2
〃	수산동론	조규대	2
〃	일반화학	김기환	2
〃	물리학	백기훈	2

1학년 교직 과목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육사	이순형	2
	교육사회학	현인홍	2

법학과 2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김근정	1	
〃	교 련		1	
전공	헌 법	김광택	2	
〃	원서강독	조문부	1	
〃	물권법	김두희	4	
〃	형법각론	한현섭	4	
〃	행정법총론	조문부	4	
선택	국제법2부	한창영	3	택2과목
〃	헌정사	조문부	3	
〃	정치사	김광택	3	

법학과 3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1	
〃	교 련		1	
전공	원서강독	한창영	1	
〃	형사소송법	한현섭	4	
〃	채권법각론	김형훈	3	
〃	상법2부	양태길	4	
〃	민사소송법	강혁방	4	
〃	헌법연습	김광택	1	
선택	법제사	한창영	3	택2과목
〃	로마법	김형훈	3	
〃	영미법	김두휘	3	
〃	법율학특강	양태길	3	
〃	국제정치	홍성효	3	

법학과 4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김근정	1
필수	형사연습	한현섭	1
〃	민사연습	김두희	1
〃	행정법연습	조문부	1
〃	상법3부	양태길	4
〃	친족상속법	김형훈	4
선택	사회정책	한창영	3
〃	민사소송법2부	강혁방	3
〃	파산법	함순택	3
〃	행형학	김광택	3
〃	경제정책	김성만	3

경 학과 2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김근정	1	
〃	교 련		1	
전공	인사관리	김법국	3	
〃	마켓팅원론	현학순	3	
〃	경영조직론	오동현	3	
〃	장부조직론	고승희	3	
〃	상 법	양태길	3	
선택	투자론	김성만	3	택2과목
〃	민 법	강병진	3	
〃	교통산업론	부종철	3	
〃	경제사	문창우	3	

경영학과 3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1	
〃	교 련		1	
전공	마켓팅관리	부종철	3	
〃	원가계산	고승희	3	
〃	경제법전론	문창우	3	
〃	경영통계	김문판	3	
〃	상업영어	오용삼	2	
선택	국민소득론	문창우	3	택2과목
〃	경영자론	오동현	3	
〃	민 법	강병진	3	
〃	노동정책		3	

경영학과 4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김근정	1	
전공	생산관리	김법국	3	
〃	회계감사	고승희	3	
〃	조세론	김성만	3	
선택	시장정책	부종철	3	
〃	예산통제론	오동현	3	택4과목
〃	무역경영	김문판	3	
〃	계량경제	김성만	3	
〃	경영정책	현학순	3	

국어 국문학과 2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김근정	1	
〃	교 련		1	
전공	국문학개론	양중해	2	
〃	국문학강독	현용준	3	
〃	한문강독(1)	진원일	4	
〃	현대문학연습(1)	김시태	2	
〃	국어학강독	김홍식	2	
선택	국어어휘론	강근보	3	택2과목
〃	시조론	심여택	3	
〃	현대소설론	김영돈	3	

국어 국문학과 3학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1	
〃	교 련		1	
전공	언어학	현평효	4	
〃	국어학사	강근보	2	
〃	국어학연습	김홍식	2	
〃	한문강독	진원일	2	
〃	국문학사	김여택	4	
〃	문학원론	김시태	2	
〃	문예사조	김영돈	2	
선택	설화문학	현용준	4	택1
〃	이두론	강근보	4	
	현대문학특강		4	

국어 국문학과 4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김근정	1	
전공	국어사	강근보	2	
〃	고대소설론	심여택	2	
〃	고대시가론	양중해	2	
〃	국어학연습	현평효, 강근보	2	
〃	향가연구	김홍식	4	
〃	국어방언론	현평효	4	
〃	동양전학	진원일	4	
〃	작품론	김시태	4	

영어 교육과 2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강두진	1
〃	교 련		1
전공	영어회화	김순택	2
〃	언어학개론	양우진	3
〃	영미시(1)	강용원	3
〃	영미희곡	김필호	3
선택	심리소설	김수종	3
〃	영산문	양상익	3
〃	음운론	황언택	3
교직	교육심리	고명규	2

영어 영문학과 3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김근정	1
〃	교 련		1
전공	씩스피어	강수언	3
〃	영미소설	김수종	3
〃	영미시	강용원	3
〃	영미희곡	김필호	3
〃	영어학개론	황언택	3
〃	영어문법	황언택	2
선택	작가연구	양상익	2
〃	영어연습	Dustin	1
교직	교육방법	박두태	3

영어 영문학과 4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김근정	1
전공	영문학사	강용원	3
〃	영작문	양수언	3
〃	영문학평론	김수종	3
〃	미문학사	김필호	3
선택	미문학특강	강수언	3
〃	영문학연습	김수종	2
〃	영어학특강	김순택	2
〃	영어연습	Dustin	1
교직	교육실습		2

수학교육과 2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강두진	1
〃	교 련		1
전공	교육심리	현인홍	2
〃	현대대수	김영신	4
〃	해석학	한철순	3
〃	미분방정식	고중석	3
〃	해석기하	한철순	3
선택	한 문	부윤조	2
〃	물리학	백기훈	2
〃	집합론	한철순	3
〃	Vector해석	김영신	2

농학과 2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김철원	1
〃	교 련		1
전공	비료학	김형옥	2
〃	농업곤충	권오균	2
〃	동실습	〃	1
〃	작물생리	〃	2
〃	동실습	〃	1
〃	유전학	김한림	2
〃	농업기상	김순찬	2
〃	농장실습	박양문	1
선택	외서강독	김형옥	2
〃	농공학개요	김순찬	2
〃	측량학	〃	2
〃	축산학	김승찬	2

농학과 3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김철원	1
〃	교 련		1
전공	육종학각론	김한림	2
〃	동실습	〃	1
〃	전 작	박양문	3
〃	동실습	〃	1
〃	농업통계	〃	3
〃	재상학	노현상	1
〃	농실습	〃	1
〃	농장실습	오현도	1
선택	외서강독		2
〃	약용식물	오현도	2
〃	낙엽과수	장전익	2
〃	농업경영	고종원	2

농학과 4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김철원	1
전공	난지작물	오현도	3
〃	동실습	〃	1
〃	채소원예	안경광	2
〃	동실습	〃	1
〃	화훼원예	정희준	2
〃	농업교도론	고종원	2
〃	농학연습	〃	1
선택	양잠학	노현상	2
〃	동실습	〃	1
〃	외서강독	오현도	2
〃	임산물이용론	김순찬	2
〃	채종학	김한림	2
〃	농정학	고종원	2

원예학과 2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김철원	1
〃	교 련		1
전공	과수원예총론	한해룡	2
〃	동실습	〃	1
〃	잡곡학(1)	백자훈	2
〃	채소원예총론	안경광	2
〃	동실습	〃	1
〃	작물생리학		2
〃	비료학	김형옥	2
〃	유전학	김한림	2
〃	농업기상학	김순찬	2
선택	외서강독	박정덕	1
〃	농업경제	고종원	2
〃	유기화학	김기환	2
〃	작물병리	권오균	2

원예학과 3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김철원	1
〃	교 련		1
전공	잡곡학(2)	백자훈	2
〃	채소원예각론	안경광	2
〃	실험통계학	정희준	2
〃	세미나	박정덕	1
선택	외서강독	노현상	1
〃	과수원예총론	정희준	2
〃	화훼원예총론	정희준	2
〃	동실습	〃	1
〃	원예육종학	김한림	2
〃	실험통계학	장전익	2
〃	세미나	장전익	1
선택	외서강독	장전익	1
〃	잡곡원식재배	한해룡	2
〃	촉성재배	안경광	2
〃	잡업개요	노현상	2
〃	축산학개론	김승찬	2

원예학과 4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김철원	1
전공	잡곡학(Ⅲ)	한해룡	2
〃	동실습	〃	1
〃	채종학	백자훈	2
〃	조원학	정희준	2
〃	잡곡가공학	김형옥	2
〃	원예경영학	고종원	2
〃	세미나(Ⅱ)	안경광	1
선택	외서강독	안경광	1
〃	잡곡품종론	백자훈	2
〃	열대작물학	정희준	2
〃	농업지도	고종원	2

축산학과 2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김철원	1
〃	교 련		1
전공	유전학	한성욱	3
〃	가축해부학	김창근	3
〃	가축사양학	정창조	2
〃	양토학	김승찬	2
〃	목장설습	김창근	1
필선	외서강독	정창조	1
〃	가축심사학	김형균	2
〃	동실습	〃	1
선택	가축세균학	김오남	2
〃	실험통계학	이무환	3
〃	사료작물학	정창조	2
〃	사료작물학실습	〃	1

축산학과 3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김철원	1
〃	교 련		1
전공	영양학	김형균	2
〃	가축사료학	〃	2
〃	가축번식학	한성욱	2
〃	육가공학	이현종	3
〃	동실습	〃	1
필선	외서강독	김형균	1
〃	마 학	김창근	3
선택	가축전염병학	김오남	2
〃	생화학	김창근	2
〃	가금생산물학	이현종	2
〃	가축위생학	김승호	2
〃	농업경영학	고종원	2

축산학과 4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김철원	1
전공	축산경영학	이무환	2
〃	가축육종학	한성욱	2
〃	가축인공수정론	〃	3
〃	목야론	정창조	3
〃	축산연습		1
〃	목장실습	이무환	1
필선	외서강독	김승찬	1
선택	축산법규	〃	2
〃	가금번식학	한성욱	3
〃	가축질병학	서두석	3

수의학과 2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김철원	1
〃	교 련		1
전공	가축해부실습	이정택	1
〃	수의생리학	한방군	4
〃	동실습	〃	1
〃	수의양리학	양기천	2
〃	동실습	〃	1
〃	수의병리학	오문유	2
필선	외서강독	한방조	1
〃	수의조직학실습	오문유	1
〃	가축방생학	이정택	2
〃	의화학	김기환	4
〃	실험동물학	한방군	2

수의학과 3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김철원	1
〃	교 련		1
전공	수의병리학	오문유	2
〃	수의미생물학	김오남	2
〃	동실습	〃	1
〃	수의내과학	임정택	2
〃	동실습	〃	1
〃	수의외과학	서두석	2
〃	동실습	〃	1
〃	수의산과학	김영홍	2
〃	동실습	〃	1
〃	가축전염병학	김오남	2
〃	수의공중위생학	김승호	2
필선	외과수술학	서두석	1
〃	외서강독	양기천	1
〃	실험통계학	이현종	2

수의학과 4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김철원	1
전공	수의외과학	서두석	2
〃	동실습	〃	1
〃	수의내과학	임정택	2
〃	동실습	〃	1
〃	수의산과학	김영홍	2
〃	동실습	〃	1
〃	가축전염병학	김오남	2
〃	수의공중위생학	김승호	2
〃	동실습	〃	1
필선	중독학	양기천	2
〃	수의사법규	이정택	1
〃	임상형액학	한방군	2
〃	방사선학	서두석	2
〃	졸업논문		2

농가정학과 2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배영호	1
전공	서양복구조학	현혜경	3
〃	한복구조학	문화자	3
〃	생활공예	문기선	2
〃	일반조리(Ⅱ)	박경자	3
〃	가정간호학	김호자	1
선택	일반주예	현혜경	1
〃	유기화학	김기환	2
〃	생활물리	김기선	2
〃	미생물학	김오남	3
〃	생리학	오석성	2
〃	가정음악	배영호	1
〃	잡학개론	노현상	1

농가정학과 3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배영호	1
전공	복장학	현혜경	2
〃	조리과학(Ⅱ)	박경자	2
〃	식이요법	〃	3
〃	주택장치	문기선	2
〃	가정연습	현혜경	1
〃	영양학	홍양자	3
〃	아동발달	〃	2
〃	가정경제	현학순	2
선택	농촌공예	문기선	2
〃	가정원예	정희준	2
〃	원서강독	문화자	1

농가정학과 4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배영호	1
전공	고급한복	문화자	2
〃	농산및가공저장	박경자	3
〃	가정연습	문화자	1
〃	집단급식	홍양자	2
〃	실험조리(Ⅱ)	〃	2
〃	농촌공예(Ⅱ)	문기선	2
〃	식품화학	김형옥	2
〃	가정관실습	홍양자, 박경자	2
선택	고급주예	현혜경	1
〃	외서강독	홍양자	1
〃	농촌사회학	고종원	2

어로학과 2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강두진	1
〃	교 련		1
전공	지문항해	신형일	3
〃	항해계기	〃	3
〃	운용학(1)	경공훈	3
〃	해양학(1)	김안영	2
〃	기상학	조규대	2
〃	어구학실습		1
〃	어로학(1)	손태준	3
〃	연안항해및운용실습		1
선택	항해수학	조규대	2
〃	외서강독	신형일	2
〃	부유생물		2
〃	어업리물학		2

어로학과 3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강두진	1
〃	교 련		1
전공	천문항해	조규대	4
〃	운용학(2)	경공훈	3
〃	어로학(3)	손태준	3
〃	수산자원학	정상철	2
〃	유체역학	고장권	2
〃	근해항해운용	및어로실습	1
선택	박용기관	고장권	1
〃	어업기기학		2
〃	해양학(2)	김안영	2
〃	어법학특강		2
〃	외서강독	정공훈	2

제조학과 2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김철원	1
〃	교 련		1
전공	분석화학	박길순	2
〃	동실험	〃	2
〃	물리화학	양창일	2
〃	동실험	〃	1
〃	생물화학	〃	4
〃	동실험	〃	1
〃	열역학	함윤희	4
선택	세미나	안철우	1
〃	수산식물학	이기완	2
〃	생물통계학	정상철	2

제조학과 3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김철원	1
〃	교 련		1
전공	미생물(Ⅱ)	안철우	2
〃	동실험	〃	1
〃	병동방강학		2
〃	동실험	〃	1
〃	수산화학	하봉석	2
〃	동실험	〃	2
〃	발효공업	안철우	4
〃	동실험	〃	1
필선	화학공학(Ⅱ)	함윤희	2
선택	외서강독	안철우	1
〃	기기분석	박길순	2
〃	해조공업	신필현	2
〃	수산기계론	박길순	2
〃	식품학개론	〃	2

제조학과 4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김철원	1
전공	수산제조(Ⅱ)	신필현	3
〃	동실습	〃	1
〃	농축산가공학	김형옥	4
〃	동실습	〃	1
선택	세미나	안철우	1
〃	외서강독	양창일	1
〃	식품위생학	안철우	4
〃	식품냉동학	하봉석	4
〃	수산자원학	정상철	4
〃	식품토장학	신필현	2
〃	수산경영	현학순	2
〃	수산법제	박겸희	2

증식학과 2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김철원	1
〃	교 련		1
전공	생물통계학	정상철	2
〃	유기화학	하봉석	2
〃	해양학	김안영	2
〃	동물생리학	이정재	2
〃	수산무척추	김창현	3
〃	동물학		
선택	세미나	김안영	2
〃	외서강독	김을배	1
〃	기상학	박겸희	2
〃	동물조직학	김안영	2
〃	분석화학	박길순	2
〃	어장학	노홍길	2

증식학과 3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김철원	1
〃	교 련		1
전공	수산계통학	이정재	2
〃	부유생물학	김안영	2
〃	어류학	백문하	2
〃	수산식물학	이기완	2
〃	합수증식(Ⅰ)	김창현	2
〃	〃 (Ⅱ)	김안영	2
〃	이료생물론	김창현	2
〃	수족병리학	백문하	2
선택	세미나	이정재	2
〃	전화론	〃	2
〃	육수학	김을배	2
〃	보양학	김형옥	2
〃	외서강독	이경재	1

증식학과 4학년

구분	과 목	담당교수	학점
교양	체 육	김철원	1
전공	탁수증식학	김을배	3
〃	해조류증식학	이기완	1
〃	수산자원학	정상철	3

一九七一년도제二학기시간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과목	교수 강당	과목	교수 강당	과목	교수 강당	과목	교수 강당	과목	교수 강당	과목	교수 강당	과목	교수 강당	과목	교수 강당
법	영어A	황언택 14	국민윤리	김인재 9	국어B	양중해 9	국민윤리	김인재 9	교육사회학	현인홍 9	교련	교관단 大	교련	교관단	太	
경	〃	오용삼 1	〃	〃 〃	〃	〃 〃	〃	〃 〃	〃	〃 〃	〃	〃 〃	〃	〃 〃	〃	〃 〃
국	중국어	황언택 14														
		부윤조 5	〃	〃 〃	〃	〃 〃	〃	〃 〃	〃	〃 〃	〃	〃 〃	〃	〃 〃	〃	〃 〃
영	〃	황언택 14	국어B	양중해 14	국민윤리	김인재 14	교육사회학	현인홍 14								
	중국어	부윤조 5									〃	〃 〃	〃	〃 〃	〃	〃 〃
수	영어A	황언택 14	〃	〃 14	〃	〃 〃	〃	〃 〃	한문	부윤조 2	〃	〃 〃	〃	〃 〃	〃	〃 〃
	〃	강동원 3														
1 농	중국어	부윤조 5	외국어(영B)	양우진 1	외국어(영B)	양우진 1	자연과학	박행신 1	수학	고종석 1	〃	〃 〃	〃	〃 〃	〃	〃 〃
원	〃	〃 3	〃 (독)	한재홍 5	〃 (독)	한재홍 5										
축	〃	〃 〃	〃 (불)	고원희 6	〃 (불)	고원희 6	자연과학	박행신 1	〃	〃 〃	〃	〃 〃	〃	〃 〃	〃	〃 〃
수의	〃	강동원 3														
	중국어	부윤조 5	〃	〃 〃	〃	〃 〃	〃	〃 〃	〃	〃	〃	〃 〃	〃	〃 〃	〃	〃 〃
가정	〃	〃 3	〃	〃 〃	〃	〃 〃	통물학	5	동물학	5						
어로	체육	강두진 大	체육	강두진 大	통계학	한철순 3	외국어(인도)	강수연 4	국어A	현용준 4	〃	〃 〃	〃	〃 〃	〃	〃 〃
제조	물리	백기훈 4	수학	김영신 4	국어A	현용준 4	(불)	고원희 3			〃	〃 〃	〃	〃 〃	〃	〃 〃
증식	〃	〃 4	〃	〃 4	〃	〃 4	(독)	한재홍 6			〃	〃 〃	〃	〃 〃	〃	〃 〃
요 법	헌법	김관택 7	행정법총론	조문부 7	체육	김근정 大	체육	김근정 大	헌정사	조문부 7	원서강독	조문부 7				
경	경제사	문창우 8	인사관리	김범국 8	〃	〃 〃	〃	〃 〃	상법	양태길 8						
국	국문학개론	양주혜 10	국문학강독	현용준 10	〃	〃 〃	〃	〃 〃	〃	〃 〃	〃	〃 〃	〃	〃 〃	〃	〃 〃
2 영	영어회화	김순택 12	영미희곡	김필호 12	언어학개론	양우진 12	영미시	강동원 12	음운론	황언택 12						
수	해석기하	한철순 2	김합론	한철순 2	현대대수	김영신 2	물리학	백기훈 2	한문	부윤조 2						
가정	가정음악	배영호 23	서양복구조	천혜경 23	서양복구조	천혜경 23	한복구조	생활물리	생활물리	문기선 23	통실습	문기선 23	통실습	문기선	23	
어로	지문항해	신형일	항해개기	신형일	운용학	김공훈	항해수학	조규대	외서강독	신형일	기상학	조규대	어로학	손태춘		
법	채권법각론	김형홍 13	상법2부	양태길 13	민사소송법	강혁방 13	민사소송법	강혁방 13	교련	교관단 14	교련	교관단 14				
경	원가계산	고승희 15	경제발전론	문창우 15	경영통계	김문관 15	상업영어	오웅삼 15	〃		〃					
국	국문학사	심어택 16	국어학사	강근보 16	언어학	현평효 16	언어학	현평효 16	〃		〃	(R.O.T.C)				
3 영	씩스피어	강수연 17	영미소설	김수종 17	영미시	강동원 17	영미희곡	김필호 17	〃		〃					
가정	복장학	현혜경 24	조리과학	천혜경 24	동실습	박경자 24	동실습	박경자 24	가정원예	정희춘 24	동실습	정희춘 24	동실습	정희춘	24	
어로	천문항해	조규대	천문항해	조규대	어로학	손태춘	운용학	정공훈	교련	14	교련	14	박용기관	고정권		
법	상법3부	양태길 18	친족상속법	김형홍 18	행정법연습	조문부 18	행정법연습	조문부 18	민소법2부	강혁방 18	사회정책	강혁방 18				
상	생산관리	김범국 19	회계감사	고승희 19	조세론	김성만 19	부역경영론	김문관 19								
4 국	국어방언론	현평효 20	국어방언론	현평효 20	고대소설론	심어택 20	동양철학	지원일 20	국어방언론	현평효 20						
영	미문학사	김필호 21	영문학사	강동원 21	영문학연습	김수종 21	영문학연습	김수종 21								
가정	고급한복	문화자 25	동실습	문화자 25	동실습	문화자 25	가구선택관리		25	농산가공저장	박경자 25					
법	국어B	양중해 9	영어A	황언택 3	문화사	김종업 4	외국어(독)	한재홍 4	정치학	김광택 5	경제학	문창우 5	사회사상사	한순택	5	
경	〃	〃 〃	경영수학	김문관 4	〃	〃 〃	〃	〃 〃	사회학	한창영 6	김리학	고명규 6				
국	〃	〃 〃	영어A	황언택 3	국어경서법	강근보 3	〃	(불) 고원희 3	타자실습	김범국 3	타자실습	김범국 3				
영	영어A	황언택 14	국어A	김영돈 14	국민윤리	김인재 14	〃	〃 〃	자연과학	박행신 4	〃	〃 〃	교육사	이순형 9		
수	〃	〃 〃	〃	〃 〃	〃	〃 〃	〃	〃 〃	〃	〃	교육사	이순형 9	〃	〃 〃	〃	〃
농	국어A	김영돈 1	국민윤리	김인재 1	교육사회학	현인홍 1	국어B	양중해 1	화학	김기환 14	화학	김기환 14				
1 원	〃	〃 〃	〃	〃 〃	〃	〃 〃	〃	〃 〃	〃	〃	〃	〃 〃	〃	〃 〃	〃	〃
축	〃	〃 〃	〃	〃 〃	〃	〃 〃	〃	〃 〃	〃	〃	〃	〃 〃	〃	〃 〃	〃	〃
수의	〃	〃 〃	〃	〃 〃	〃	〃 〃	〃	〃 〃	〃	〃	〃	〃 〃	〃	〃 〃	〃	〃
가정	〃	〃 〃	〃	〃 〃	〃	〃 〃	〃	〃 〃	〃	〃	〃	〃 〃	〃	〃 〃	〃	〃
어로	국민윤리	김인재 3	외국어(독)	한재홍 5	외국어(영B)	강수연 9	교육사	이순형 9	교육사	이순형 9	교육사회학	현인홍 4	교육사회학	현인홍	4	
제조	교육사회학	현인홍 4	(불)	고원희 6	(독)	한재홍 5			화학	김기환 14	화학	김기환 14				
증식	〃	〃 〃	〃	〃 〃	(불)	고원희 6			〃	〃 〃	〃	〃 〃				
법	물권법	김두회 7	헌법	김광택 7	형법각론	한원섭 7	헌정사	조문부 7	교련	교관단 大	교련	교관단 大				
경	경영조직	오동현 8	마켓팅원론	현학순 8	마켓팅원론	현학순 8	경제사	문창우 8	〃	〃 〃	〃	〃 〃				
국	국문학강독	현용준 10	국문학개론	양중해 10	한문강독	지원일 10	국어어휘론	강근보 10	〃	〃 〃	〃	〃 〃				
영	언어학개론	양우진 12	심리소설	김수종 12	체육	현경삼 大	체육	현경삼 大	〃	〃 〃	〃	〃 〃				
2 수	Vector해석	김영신 2	현대대수	김영신 2	〃	〃 〃	〃	〃 〃	〃	〃 〃	〃	〃 〃				
가정	한복구조	문화자 23	생활공예	문기선 23	유기화학	김기환 23	유기화학	김기환 23	체육	배영호 23	체육	배영호 23				
어로	체육	현경삼	체육	현경삼	지문항해	신형일	항해계기	신형일	교련	교관단 大	교련	교관단 大				
법	형사소송법	한원섭 13	채권법각론	김형홍 13	상법 2부	양태길 13	법제사	한창영 13	교육방법	박두태 2	교육방법	박두태 2	교육방법	박두태	2	
경	경제발전론	문창우 15	국민소득론	문창우 15	국민소득론	문창우 15	상업영어	오웅삼 15	〃	〃 〃	〃	〃 〃	〃	〃 〃	〃	〃
국	언어학	현평효 16	국문학사	심어택 16	국문학사	심어택 16	운역사조	김범준 16	〃	〃 〃	〃	〃 〃	〃	〃 〃	〃	〃
3 영	영미소설	김수종 17	씩스피어	강수연 17	영미시	강동원 17	영미희곡	김필호 17	〃	〃 〃	〃	〃 〃	〃	〃 〃	〃	〃
가정	교육방법	박두태 24	교육방법	박두태 24	교육방법	박두태 24	체육	배영호 24	체육	배영호 24	육장실습	현혜경 24	육장실습	현혜경	24	
어로	어로학	손태춘	운용학	정공훈	천문항해	조규대	외서강독	정공훈	〃	김인재 〃	김인재	〃	김인재			
법	친족상속법	김형홍 18	상법 3부	양태길 18	사회정책	한창영 18	행형학	김광택 18								
상	조세론	김성만 19	생산관리	김범국 19	회계감사	고승희 19	경영정책	현학순 19								
4 국	국어사	강근보 20	국어방언론	현평효 20	향가연구	김종서 20	고대소설론	심어택 20	R. O. T. C.							
영	미문학특강	강수연 21	영문학사	김필호 21	미문학사	김필호 21	영문학성론	김수종 21								
가정	농산가공저장	박경자 25	동실습	박경자 25	동실습	박경자 25	가정연습	문화자 25	가정연습	문화자 25	체육	배영호 25	체육	배영호	25	
법	국어A	김영돈 4	국어A	김영돈 4	영어B	강수연 9	외국어(독)	한재홍 9	사회학	한창영 6	경제학	문창우 5				
경	〃	〃 〃	〃	〃 〃	〃	오웅삼 1	(불)	고원희 3	정치학	김광택 5	심리학	고명규 6	경제학	문창우	5	
						강수연 9										
국	〃	〃 〃	〃	〃	중국어	부윤조 5	〃	〃 〃								
						siegel 어										
영	체육	강두진 大	체육	강두진 大	중국어	부윤조 5	〃	〃 〃	국어B	양중해 9	언어학서설	김순택 9				
수	〃	〃 〃	〃	〃	영어(B)	양우진 3	〃	〃 〃	〃	〃 〃	문화사	김종업 3				
1 농	철학	이희주 3	교육사회학	현인홍 3	외국어(中)	부윤조 5	교육사	이순형 1	교육사	이순형 1	수학	고종석 1				
원	〃	〃 〃	〃	〃 〃	(독)	한재홍 4	〃	〃 〃	〃	〃 〃	〃	〃 〃				
축	〃	〃 〃	〃	〃 〃	(불)	고원희 6	〃	〃 〃	〃	〃 〃	〃	〃 〃				
						〃										
수의	〃	〃 〃	〃	〃 〃	(중)	부윤조 5	〃	〃 〃	〃	〃 〃						
가정	〃	〃 〃	〃	〃 〃	〃	〃 〃	〃	〃 〃	〃	〃 〃	경제원론	문창우	5	경제원론	문창우	5
수 어로	국민윤리	김인재 1	철학	이희주 1	영어A	김순택 14	물리	백기훈 4	통계학	한철순 4	생물학			4 생물학		4
제조	수학	김영신 9	국민윤리	김인재 9	〃	〃 〃	철학	이희주 14	수학	김영신 14						
증식	〃	〃 〃	〃	〃 〃	〃	〃 〃	〃	〃 〃	〃	〃						
법	형법각론	한원섭 7	행정법총론	조문부 7	물권법	김두회 7	원서강독	조문부 7								
경	경부조직론	고승희 8	마켓팅원론	현학순 8	경제사	문창우 8	인사관리	김범국 8	투자론	김성만 8	교통산업론	부종철 8				
국	한문강독	지원일 10	국문학강독	현용준 10	국어어휘론	강근보 10	현대소설론	김영돈 10								
영	영미시	강동원 12	언어학개론	양우진 12	심리소설	김수종 12	음운론	황언택 12								
2 수	해석기하	한철순 2	해석학	한철순 2	현대대수	김영신 2	해석기하	한철순 2	미분방정식	고종석 2						
가정	서양복구조				한국											
	구조실습	현혜경 23	동실습	현혜경 23	구조실습	문화사 23	동실습	문화자 23	가정음악	배영호 23						
어로	기상학	조규대	항해계기	신형일	지문항해	신형일	항해수학	조규대	외서강독	신형일	해양학	김안영	해양학	김안영		
									영미법	김두회 10	로마법	김형홍 10				
법	상법 2부	양태길 13	형사소송법	한원섭 13	채권법각론	김형홍 13	형소법	한원섭 13	법률학특강	양태길 12	법률학특강	양태길 13	법제사	한창영	13	
경	경영통계	김문관 15	상업영어	오웅삼 15	마켓팅관리	부종철 15	경제발전론	문창우 15	국민소득론	문창우 15	경영자론	오동현 15				
국	국어학사	강근보 16	한문강독	진원일 16	언어학	현평효 16	문학평론	김시태 16	문예사조	김영돈 16	이두론	강근보 16	이두론	강근보	16	
3 영	씩스피어	강수연 17	영미소설	김수종 17	영미시	강동원 17	영미희곡	김필호 17			현대문학특강(국)	10	현대문학특강(국)		10	
가정	원서강독	문화자 24	원서강독	문화자 24	주택장치	문기선 24	동통실습	문기선 24	주택장치실습	문기선 24	동실습		문기선 24			
어로	운용학2	정공훈	천문항해	조규대	체육	강두진	체육	강두진	어로학3	손태춘	어업기기학	A	어업기기학	A		
법	민사연습	김두회 18	민사연습	김두회 18	민사연습	김두회 18	친족상속법	김형홍 18								
상	사장정책	부종철 19	계량경제	김성만 19	경영정책	현학순 19	경영정책	현학순 19								
4 국	국어학연습	현평효 20	국어학연습	현평효 20	개사가론	양중해 20	국어사	강근보 20	R. O. T. C.							
영	영어학특강	김순택 21	영문학사	강동원 21	문학사	김필호 21	영작문	양우진 21								
가정	심단금식	홍양자 25	동실습	홍양자 25	동실습	홍양자 25	농촌사회학	고종원 25	농촌사회학	고종원 25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과목	교수명 강의	과목	교수명 강의	과목	교수명 강의	과목	교수명 강의	과목	교수명 강의	과목	교수명 강의	과목	교수명 강의	과목	교수명 강의
법	외국어(독)	한재홍 4	법학통론	김두회 1	영어B	강수연 3	정치학	김광택 9	사회사상사	한순택 5	사회사상사	한순택 5	교육사회학	현인홍 8		
경	〃 (불)	고원희 1	영어A	오웅삼 3	〃	오웅삼 1	경영수학	김문관 1	사회학	강혁방 1	사회학	강혁방 1	〃	〃 〃		
국	〃 (中)	부윤조 5	인류학	현용준 5	〃	강수연 3	문화사	김종업 3	〃	〃 〃	〃	〃 〃	〃	〃 〃		
영	〃	〃 〃	〃	〃 〃	〃	강수연 3	〃	〃 〃	〃	〃 〃	〃	〃 〃	〃	〃 〃		
수	〃	〃 〃	교육사회학	현인홍 〃	〃	〃 〃	〃	〃 〃	〃	〃 〃	〃	〃 〃	〃	〃 〃		
	영어A	강동원 3														
농	중국어	부윤조 5	국민윤리	김인재 4	생물학	김순환 11	생물학	김순찬 11								
1 원	〃	〃 〃	〃	〃 〃	식물학	박정덕 5	식물학	박정덕 5	생물학	박정덕 3	생물학	박정덕 3				
축	〃	〃 〃	〃	〃 〃	축산학개론	김승찬 6	축산학개론	김승찬 6								
	〃	〃														
수의	중국어	부윤조 5	〃	〃 〃	가축해부학	이정택 9	가축해부학	이정택 21	가축해부학	이정택 21	가축해부학	이정택 21				
가정	〃	〃 3	〃	〃 〃	가정음악	배영호 가	가정음악	배영호 가	생물학	박정덕 6	생물학	박정덕 6				
어로					R. O. T. C											
제조	물리	백기훈 14	철학	이희주 14	교육사회학	현인홍 14	국민윤리	김인재 14	생물학	9 생물학						
증식	〃	〃 〃	〃	〃 〃	〃	〃 〃	〃	〃 〃	〃	〃 〃						
법	행정법총론	조문부 7	물권법	김두회 7	형법각론	한원섭 7	국제법2부	한창영 7	교육심리	고명규 14	교육심리	고명규 14				
경	인사관리	김범국 8	경영조직	오동현 8	장부조직론	고승희 8	상법	양태길 8	〃	〃 〃	〃	〃 〃				
국	현대소설론	김영돈 10	한문강독	진원일 10	현대문학연습	김시태 10	현대문학연습	김시태 10	〃	〃 〃	〃	〃 〃				
2 영	영어회화	김순택 12	영미희곡	김필호 12	심리소설	김수종 12	영문학	김수종 12								
수	수학	한철순 2	해석학	한철순 2	현대대수	김영신 2	〃	〃 〃	한문	부윤조 2						
가정	해석학	한철순 2	〃	〃 〃	〃	〃 〃	〃	〃 〃	〃	〃 〃						
어로	천문항해	조규대	천문항해	조규대	어로학	손태춘	운용학	정공훈	교련	14	교련	14	박용기관	고정권		
법	헌법	김관택 7	행정법총론	조문부 7	체육	김근정 大	체육	김근정 大	헌정사	조문부 7	원서강독	조문부 7				
경	경제사	문창우 8	인사관리	김범국 8	〃	〃 〃	〃	〃 〃	상법	양태길 8						
국	국문학개론	양주혜 10	국문학강독	현용준 10	〃	〃 〃	〃	〃 〃	〃	〃 〃	〃	〃 〃	〃	〃 〃	〃	〃 〃
2 영	영어회화	김순택 12	영미희곡	김필호 12	언어학개론	양우진 12	영미시	강동원 12	음운론	황언택 12						
수	해석기하	한철순 2	김합론	한철순 2	현대대수	김영신 2	물리학	백기훈 2	한문	부윤조 2						
가정	가정음악	배영호 23	서양복구조	천혜경 23	서양복구조	천혜경 23	한복구조	생활물리	생활물리	문기선 23	통실습	문기선 23	통실습	문기선	23	
어로	지문항해	신형일	항해개기	신형일	운용학	김공훈	항해수학	조규대	외서강독	신형일	기상학	조규대	어로학	손태춘		
법	채권법각론	김형홍 13	상법2부	양태길 13	민사소송법	강혁방 13	민사소송법	강혁방 13	교련	교관단 14	교련	교관단 14				
경	원가계산	고승희 15	경제발전론	문창우 15	경영통계	김문관 15	상업영어	오웅삼 15	〃		〃					
국	국문학사	심어택 16	국어학사	강근보 16	언어학	현평효 16	언어학	현평효 16	〃		〃	(R.O.T.C)				
3 영	씩스피어	강수연 17	영미소설	김수종 17	영미시	강동원 17	영미희곡	김필호 17	〃		〃					
가정	복장학	현혜경 24	조리과학	천혜경 24	동실습	박경자 24	동실습	박경자 24	가정원예	정희춘 24	동실습	정희춘 24	동실습	정희춘	24	
어로	천문항해	조규대	천문항해	조규대	어로학	손태춘	운용학	정공훈	교련	14	교련	14	박용기관	고정권		
법	상법3부	양태길 18	친족상속법	김형홍 18	행정법연습	조문부 18	행정법연습	조문부 18	민소법2부	강혁방 18	사회정책	강혁방 18				
상	생산관리	김범국 19	회계감사	고승희 19	조세론	김성만 19	부역경영론	김문관 19								
4 국	국어방언론	현평효 20	국어방언론	현평효 20	고대소설론	심어택 20	동양철학	지원일 20	국어방언론	현평효 20						
영	미문학사	김필호 21	영문학사	강동원 21	영문학연습	김수종 21	영문학연습	김수종 21								
가정	고급한복	문화자 25	동실습	문화자 25	동실습	문화자 25	가구선택관리		25	농산가공저장	박경자 25					
법	국어B	양중해 9	영어A	황언택 3	문화사	김종업 4	외국어(독)	한재홍 4	정치학	김광택 5	경제학	문창우 5	사회사상사	한순택	5	
경	〃	〃 〃	경영수학	김문관 4	〃	〃 〃	〃	〃 〃	사회학	한창영 6	심리학	고명규 6				
국	〃	〃 〃	영어A	황언택 3	국어경서법	강근보 3	〃	(불) 고원희 3	타자실습	김범국 3	타자실습	김범국 3				
영	영어A	황언택 14	국어A	김영돈 14	국민윤리	김인재 14	〃	〃 〃	자연과학	박행신 4	〃	〃 〃	교육사	이순형 9		
수	〃	〃 〃	〃	〃 〃	〃	〃 〃	〃	〃 〃	〃	〃	교육사	이순형 9	〃	〃 〃	〃	〃
농	국어A	김영돈 1	국민윤리	김인재 1	교육사회학	현인홍 1	국어B	양중해 1	화학	김기환 14	화학	김기환 14				
1 원	〃	〃 〃	〃	〃 〃	〃	〃 〃	〃	〃 〃	〃	〃	〃	〃 〃	〃	〃 〃	〃	〃
축	〃	〃 〃	〃	〃 〃	〃	〃 〃	〃	〃 〃	〃	〃	〃	〃 〃	〃	〃 〃	〃	〃
수의	〃	〃 〃	〃	〃 〃	〃	〃 〃	〃	〃 〃	〃	〃	〃	〃 〃	〃	〃 〃	〃	〃
가정	〃	〃 〃	〃	〃 〃	〃	〃 〃	〃	〃 〃	〃	〃	〃	〃 〃	〃	〃 〃	〃	〃
어로	국민윤리	김인재 3	외국어(독)	한재홍 5	외국어(영B)	강수연 9	교육사	이순형 9	교육사	이순형 9	교육사회학	현인홍 4	교육사회학	현인홍	4	
제조	교육사회학	현인홍 4	(불)	고원희 6	(독)	한재홍 5			화학	김기환 14	화학	김기환 14				
증식	〃	〃 〃	〃	〃 〃	(불)	고원희 6			〃	〃 〃	〃	〃 〃				
법	물권법	김두회 7	헌법	김광택 7	형법각론	한원섭 7	헌정사	조문부 7	교련	교관단 大	교련	교관단 大				
경	경영조직	오동현 8	마켓팅원론	현학순 8	마켓팅원론	현학순 8	경제사	문창우 8	〃	〃 〃	〃	〃 〃				
국	국문학강독	현용준 10	국문학개론	양중해 10	한문강독	지원일 10	국어어휘론	강근보 10	〃	〃 〃	〃	〃 〃				
영	언어학개론	양우진 12	심리소설	김수종 12	체육	현경삼 大	체육	현경삼 大	〃	〃 〃	〃	〃 〃				
2 수	Vector해석	김영신 2	현대대수	김영신 2	〃	〃 〃	〃	〃 〃	〃	〃 〃	〃	〃 〃				
가정	한복구조	문화자 23	생활공예	문기선 23	유기화학	김기환 23	유기화학	김기환 23	체육	배영호 23	체육	배영호 23				
어로	체육	현경삼	체육	현경삼	지문항해	신형일	항해계기	신형일	교련	교관단 大	교련	교관단 大				
법	형사소송법	한원섭 13	채권법각론	김형홍 13	상법 2부	양태길 13	법제사	한창영 13	교육방법	박두태 2	교육방법	박두태 2	교육방법	박두태	2	
경	경제발전론	문창우 15	국민소득론	문창우 15	국민소득론	문창우 15	상업영어	오웅삼 15	〃	〃 〃	〃	〃 〃	〃	〃 〃	〃	〃
국	언어학	현평효 16	국문학사	심어택 16	국문학사	심어택 16	운역사조	김범준 16	〃	〃 〃	〃	〃 〃	〃	〃 〃	〃	〃
3 영	영미소설	김수종 17	씩스피어	강수연 17	영미시	강동원 17	영미희곡	김필호 17	〃	〃 〃	〃	〃 〃	〃	〃 〃	〃	〃
가정	교육방법	박두태 24	교육방법	박두태 24	교육방법	박두태 24	체육	배영호 24	체육	배영호 24	육장실습	현혜경 24	육장실습	현혜경	24	
어로	어로학	손태춘	운용학	정공훈	천문항해	조규대	외서강독	정공훈	〃	김인재 〃	김인재	〃	김인재			
법	친족상속법	김형홍 18	상법 3부	양태길 18	사회정책	한창영 18	행형학	김광택 18								
상	조세론	김성만 19	생산관리	김범국 19	회계감사	고승희 19	경영정책	현학순 19								
4 국	국어사	강근보 20	국어방언론	현평효 20	향가연구	김종서 20	고대소설론	심

제2회 전국 대학생 예술제 소설부문 출품작

흔들리는 벽 (1)

국문학과 4년 고 시 홍

뻐마디 마디가 꾸물꾸물 흩어진다. 불시에 무거워졌던 몸이 한꺼번에 내려앉는다. 저녁노을, 큰고기를 놓친 늙은 수부가 그물을 끌어올리는 듯 무거운 시간. 연봉처럼 사라져간 시간들이 수평선 너머로 잠겨가는 게 보입니다.

호주머니를 다져본다. 그게 담배를 찾고 있음이라 생각하니까, 피익 웃음이 앞섰다, 어쩜, 일년 가까이나 잊어버렸던 무의식이라고할까. 지난 날의 습성을 한번쯤 돌이켜보는, 이건 끈덕진 본능인지도 모른다.

오늘따라 그 매케하면서도 시컬컬한 냄새가 콧구멍을 벌름거리게 한다, 어쩌면 그건, 수십년 동안누적된 잇몸에서 훅훅거리는 악취를, 그 끈적진 니코친으로씻어내고 싶은 충동인지도 모른다.

흙탕물을 튕기고 박병수옆을 스치고 지나던 그군용트럭이, 신자락을 내리깍아 만든 길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의상봉 꼭대기에얹혀있은 부대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박병수는 바지가랭이에묻은 펄뚝을 닦으려고 꺼냈던 손수건을 그냥 쑤셔넣었다. 땟국으로 테데하게얼룩진 손수건에서 풍기는격격한 내음이 구토증을 일으키게했다.

「아빠아!」

「그래. 어서 가자.」

꼬마놈이 다시 박병수의 뻐드락진 바지자락을 주물럭거렸다.

「아빠 뭐 잊어버린 거 있지이?」

「없는데요오.」

「난 알고 있는데도?」

헤액거리며 몽실몽실 재잘거리던 꼬마놈의 또랑진 눈바위가 쫑끗했다.

「오늘 아침 이삿짐 꾸릴때 주웠든 단추가아 빠거라던데.」

박병수의 고개가 무의식적으로 옷고름 쪽을 설치고 지났다 그러는 박병수의 입가에 야릇한 미소가 맴돌았다.

「난 그것보담 더 많이 잊어버렸는데 하나밖에 안 주웠읍니까아?」

「으응. 이상하다아. 난하나밖에 줍지 않았는데!」

검문소 저 쪽에는 이미 시동이 걸려있는 군용뻐스한대가 부릉대고 있었다.

푸른 수의를 벗어 던지고 나오는 복역수와도 같은 기분이었다. 무엇인가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채 그냥 나온 것만같은허전감과 어떤 해방감에 희푸죽죽한 박병수의 얼굴은 발그레하니 상기되어 있었다. 빨리 이곳을 떠나얀다 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질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장 중요한 대사의 한 귀절을 잊어버린 채 무대를 내되서는 배우와같은 심정이었다. 손가락을 쑤셔넣어서래도 심장 한복판에 엉겨진 매슥매슥한 핏덩을훅 후벼내고 싶은 충동이 일었던 것이다. 아슬아슬한 순간마다 찢겨져 나가는 것같던 부스럭진 실덩을 말끔히도 려내 버리고 싶은 마음이다.

다시 박병수의 걸음을재촉히는 크랙숀이 귓자락을 쭈뼈스하게 했다. 맘길아서서는 M읍내까지만이라도그냥 걷고 싶다. 오늘따라응웅거리는 차체가 마치 이성 없는 젊은 놈을 대하는 것처럼 어떤 두려움이 꿈틀거리는 것이었다.

박병수는 목장지대와 같은 관시촌과 부대쪽을 뒤돌른 다음 신작로쪽으로걸어 나갔다.

「아직도 미련이 대단하신 것같군요.」

박병수는 휙 검문소쪽으로 고갤 돌렸다. 미처 굴레가 벗겨진 줄 알고 마굿간을 내딛으려던 망아지가 고비에 튀겨 되돌아서는 것과 같은, 하나의 조건반사적인 행동이었다.

소위딱지를 단 김무성이 부동자세를 취하고 손을올린다.

김무성의 계급장이 봄볕에 알맞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누어달전 M읍에 침투했던 무장공비소탕전에서 얻은 수확물이었다.

「건투를 빌겠읍니다.」

「축하합니다.」

김무성의 패기만만하면서도 조속적인 말에 박병채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손깍지를 지어 또독하니 소릴 내어 보았다. 그러나 뻐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전률은 더욱 요동을 치며 퍼지는 것이었다.

열 개의 손가락과 무릎위로 쥐가 오르는 듯했다 그래서는 전신이 그냥 제기능을 상실해 버릴 것만 같았다.

박병수는 짐짓 태연한자세로 헤멀쭉이 미소를 지은채 입을 열었다.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던 도둑놈도 일단 울타릴 빠져 나오면 뒤를 돌아본 후에야 도망간다는 말도 못 들었읍니까?」

「뱃짱이 대단하시군요. 으핫핫—」

박병수의 어깨쭉지가 섬칫했다. 그러나 상대방에서는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적이었다.

「그럼, 김소위도 알고있다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연방 싱글거리던 김무성이 심연한 얼굴로 변했다

「강하사의 죽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까무잡잡한 김무성의 안색이 발그레하니 물들었다 누구에랄 것없이 개죽음을 당한 동료에대한 어떤 미안감에서인 듯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언제나 집단에 있어선 개인의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고 또, 일개인의 존재는 항상 박탈당하고 마는 것이니까요」

박병수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만약 강우제의 생명이단십분만 더 불하받을 수있는 운명이었더라면 무슨유언을 남기고 죽었을까. 무엇인가 말을 하려다 그냥 까무러지면 그 증오에 찬 눈초라……. 박병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밖에 보이질 않았던 것이다.

김무성이 길게 숨을 몰아쉬곤 주저히는 모습으로 담뱃 내밀었다.

「만약 강우제를 죽인게 인간 박병수라면 인정히겠읍니까?」

「그런 말씀은 오히려강우제를 모독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동정도 모독도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사실 그대롭니다.」

「그래두 그건…….」

「증인 없다는 얘깁니까?」

「아무렇게 생각히셔도좋습니다. 아뭏든 하나의 집단은 그게 크던작던간에, 법이란 울타리만을 감시하고 또 문제시하는 것만은 사실이니까요. 기령 박대위님이 강하살 죽였다 하더라도 그건 일개인의 윤리관내지는 종교관에 접촉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박병수 입장에선 말입니다.」

박병수의 해죽거림이 목구멍에서 솟구치는 격격한 웃음으로 변했다. 갑자기김무성의 3단 구구법을 외우는 듯한 말이, 맹숭맹숭한 박병수의 호흡기를 건드렸던 것이다. 교차로를 가운데 두고 끽끽대던 차량들이 다시 고층건물 틈을 비벼나가기 시작했다. 그어느 한쪽모퉁이라도 건드릴 양이면 이 J시 전체가와락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았다.

(저런—. 붙잡아야 한단 말야!)

출근길에 만났던 검정무선이 자기에게 집중되어있음을 알았다.

박병수가 겸연적은 듯 씨익하니 웃어 보이자 실내는 더욱 팽팽해졌다.

「저 사람 혹시 5개월생 아니니?」

여사무원들이 까륵대며종알거림이었다.

「생각해 보았소?」

모두다 숨통을 틀어막았는지 기분나쁘리 만치 조용했다. 사장의 번들번들한 육성엔 그들도 기가 죽은 모양이었다.

「아직 생각 못해 봤읍니다.」

「이게 며칠째요?」

「…….」

「중대장을 따로둘 수도 없는 일이고 또회사사정을 보더라도 이 이상 어떻게 할 수가없을 것 같소.」

맷돌같은 것에 억눌림당하면 것 같던 맘이 조금은 풀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이 나왔다는 것을 생각히곤 저으기 놀랬다. 보름 가까이 단두대에 오른 개구리처럼 볼록이는 맘으로 출근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의 회밍이 자기 때문에 빗나갈 것을 생각하니 홀기분해짐은 어쩔 수 없었다.

박병수는 사동놈이 해멀쑥이 내민 사퇴서를 받아들었다. 어쩌면 이 놈까지도 자길 비웃고 있을거라고 생각하니 부이가 송곳처럼 욱울컥였다. 몇시간전까지만 해도 거의 90도 각도의 자세로 머릴 조아리던 놈이었다.

박병수는 공백을 메꾸느냐 미느니는 맘의 갈등에 가만히 눈을 감았다. 이 사퇴로서 한 장이 자기 운명을 점철히는 것만 같았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나 자신도 모를일이다. 그 누구도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상에야 문제시될 게 두어란 말인가. 죄가 있다면 십여년 동안 모아둔 그 빛나는 훈장들을 간직하고 있을 뿐이다. 나의 호적에 적색잉크를 떨어뜨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 박병수의 이력서에 붉은 색연필을 갖다댈 인간은 없다. 무엇 때문에 내 스스로 말뚝을 중심으로 도화선을 그으며풀을 뜯는 망아지가 되려는가? 오히려 매몰당하고 말, 이 화려하여가는 마을에서……. 위선자가 된채 그냥 살라는 겐가?)

「찌이익—매앵. 매앵. 매앵—.」

머릿발이 쭈뼈스해 왔다 뭇짓에 걸린 잿빛 가랠긁어모으는 듯한 헉헉거림이 방 안을 빼곰이 채우는듯했다.

반뼘두께도 채 안 되는 벽너머 응접실에 걸려있는 기둥시계에서 반하여 나오는 소리였다.

언제나처럼 가래에 엉겨나온 핏덩과도같은 여운을 남기며 나가떨어지는 것이었다. 쩨렁쩨렁 하면서도숨통을 얽어매는 듯한 은은함이없다. 그것은 마치 단단한 듯하면서도 결코 그렇지만도 않은, 벽장흙을긁어내리는 것과같은 소리다 더구나 아내의 치맛자락이 5일시장 한복판을 설치고돌아온 날밤에는 더욱 날카롭게 들려오는 것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아내의피둥피둥한 살갗이 박병수의 몸에 닿을 때마다 훅훅풍기는 비늘끼 묻은 개숫물내음 때문인지도 모른다.

「도대체 어쩔 셈에요?

「무얼 말씀입니까?」

「이 답답한 양반아. 뭐라 말하면—입니까—합니까만 할 게 아니라 정신 좀 차려요. 어른한테고 아이들에게고그저 예예만하고 부처님처럼 앉아있으면, 어느뉘 시주라도 받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박병수는 아득히에서 들려오는 듯한 아내의 육성을 외면하고 밖으로 나와 헛간문을 더듬었다. 후덥지근하면서도 축축한 습기가 뭇잔등위로 그물그물 기어올랐다.

박병수는 엉설진 칼자국이 나있는 나무뭉칠 집어들었다. 부식돼 기던 히나의 고체이면서 미완성 작품인 것이다. 목각이라고하여야 겨우 인면 윤곽이잡혀 있을 뿐이다.

이 한 그루의 나무밑동에 애착을 가지고 지리하게 엄습해 오는 시긴들을 메꿔 나가기 시작한 것은 지난 봄부터였다 그러니까 박병수가 곧 제대를 하고 이 문화주택에서 생활하게 되면서인 것이다.

무슨 나무인지는 알 수도 없었거니와 알려히지도 않았다. 너댓평 남짓한 정원에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도 못 기대고, 더군더나 쇠살창이 박혀있는 담벽이 미끄러워 더욱 붙기능 할 것 같다는 어떤 동정심의 발로인지도모른다. 다만 정원 한 구석에서 흉하게 썩어가는대로 내버려 두기엔 너무 아까운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나 자신도 모를일이다. 그 누구도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상에야 문제시될 게 두어란 말인가. 죄가 있다면 십여년 동안 모아둔 그 빛나는 훈장들을 간직하고 있을 뿐이다. 나의 호적에 적색잉크를 떨어뜨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 박병수의 이력서에 붉은 색연필을 갖다댈 인간은 없다. 무엇 때문에 내 스스로 말뚝을 중심으로 도화선을 그으며풀을 뜯는 망아지가 되려는가? 오히려 매몰당하고 말, 이 화려하여가는 마을에서……. 위선자가 된채 그냥 살라는 겐가?)

「5천원 주겠다는 곳이 있다는데 어떻겠나구요 네에. 네. 그럼 이 쪽에서 천원 더 생각하여 주겠다더라고 전해주세요. 네에. 네. 적당히…….」

장모 어른이 칙칙하면서도 우렁우렁한 음성에 칼끝이 빗겨 나갔다. 뒤이어 수화기 내려놓는, 가느다란 듯하면서도 결코 그렇지만도 않은 금속성이 들렸다 그게 박병수 꽁꿀진 심장을 꿈틀럭거리게 했다.

「수영이 한테선 아무말도 없었어요?」

화장대 앞에 도사리고앉았던 아내의 시선이 박병수쪽으로 돌아 앉았다. 유별하게 나긋나긋하다고 생각됐다.

「아직 없었읍니다.」

「당신 중대장직을 마다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내의 피둥피둥한 육신에서 풍기는 화장내음이 뭇잔등을 번거롭게 했다.

「…….」

「월급이 적어서? 그런거야 그냥 다니고 있으면…….」

「그런 말 이제랑 그만 하십시요.」

자꾸만 오물거리는 아내의 종알거림이 귓자락을까실까실하게 했다.

그러나 이런 박병수를 그냥 묵과시켜 버리는 아내가 아니었다. 아내의 한탄조로 내뱉는 한숨소리에도 장단을 맞춰 줘야 하는것이었다. 하다못해 입을쩍쩍 다시는 시늉이라도 하지않으면, 박병수는 그녀완 또 다른 고통을 맛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럴 때면 아내의 얼굴은 빈번히 장모의 얼굴을 착각하곤 한다. 특히 처남과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나, 전화를 걸고 받는 육성을 들을 때나, 외출 나갔다 들어 올 때는 더욱 그래지는 것이었다.

「당신 솔직히 말씀해봐요.」

「뭘 말입니까.」

박병수는 거울에 비친얼굴을 뱅울뱅울 돌리며 내뱉는 아내쪽으로 고갤 돌렸다.

「제대한 거 후회하고있는 아네요?」

「…….」

「틀림 없지요?」

박병수는 웅속에 감춰졌던 부스럼을 건드리는 것 같은 말에 주물럭거렸다. 목각 위에 얹힌 칼자국이 뿔뿔이 흩어지며 달아나는 것이었다. 가장 깊숙한 곳에 감춰져 또 다른 세계에서 풍겨오는 공기로 그 격격한 냄새를 씻겨내려는게 박살이 나버리는 것이었다.

박병수는두어평 넓이의욕상으로 나왔다. 좀처럼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박병수에게 있어선 그렇게고 맙게 여겨지질 않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는 나갈 필요성을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다. 이 J시의 중심지를 빤히 내려다 볼 수 있는 것이기때문이다.

박병수는 자기가 앉았던 방 안을 물끄러미 들여다 봤다. 어린애가 부모에게 꾸중을 듣고 문 밖에 서서 뒤를 힐끔거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조금은 고무풍선처럼 부풀어오르는 것같던 그 방이 아니었다.

단 한치의 여유도 없이 짜여진 [illegible]도 처럼 밖에 보이지 [illegible] 철조망으로울 울 두 [illegible] 방형의 그 집 들과 [illegible] 닮을 수가없었다.

6신 [illegible] 진들 모두가 단한 [illegible] 설계도에 의하여 지어 [illegible] 들이었다. 지붕의 유 [illegible] 같고 내면구조가하나 [illegible] 닮은 관사촌에서 살고 [illegible] 것만같은 것이다 벽 [illegible] 간 페인트의 빛이 같 [illegible] 붕들도 모두 합석 핀 [illegible] 덮여있는 것이었다

더욱 이상했던것 어느 얼굴을 대한 권, 관사촌내에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곤 한다. 날이 희멀거니 밝으면 이 관사촌에는 밤새틀어 막혔던 수도꼭지가 기염을 토해낸다. 살을 긁어내는 듯한 살그락거리는소리가 관사촌 구석을 빴빴하게 한다. 아내들의 쌀씻는 소리인 것이다. 남편들을 단 일분의 어김도 없게 출근하겠금해야 하는것이다.

이럴 때쯤되면 남편들의 얼굴이 구역구역 세면도구를 들고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통근뻐스의 크락숑이 울려오면 남편과 아이들이 각기 다른 곳으로 실려가는 것이다. 시장보러 가는 것에서부터 쓰레기를 내가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 우렁우렁한 군용뻐스의 크락숑이 울리는 시각에따라 하나같이 움직이는 것이었다. 마치 두 개의 큰 톱니바퀴에 맞물고 돌아가는 부속품들과 같은 것이었다. 이처럼 관사촌에 사는 사람들과의상봉과 군용차겸 승객용의 대용으로이용되는 이 삼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계 속>

아웃코너

어느날 저녁, 원정로를 따라 걷고 있었다. 무심코 앞으로 다가오는 아기씨를 바라보고는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려버리고 말았다. 무릎위 30cm는 충분히 됨직한 초미니 아기씨였다. 잘못하다가는 속팬츠가 드러날까봐 불안했다. 헌데 가까이서 보니 공연한 걱정을 했다는 걸 알았다. 그게 바로 핫팬츠라는것이였나보다.

그런데 내 자신은 수년전 부터 핫 팬츠를착용하고 있었다. 그것이새삼스레 괴상한 이름을갖고 유행이라는 미명아래 나타난 것은 장사나 하려는 얄팍한 상인의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다 편리한대로 적당히 입으면 되는 것을 공연히뉴모드라는 이름으로 부채질하는 것 같다. 나는올 여름에도 집에서마는 입어야 겠다. 편하고 시원하기 때문이다.

멋이란 사람마다 그취향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헌데 요즘처럼 꼭 같은 멋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던 때는 없지 않나 싶다. 마치 진열장속의 마네킹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 때가한두번이 아니다. 아직 우리대학에는 그런 저속한 유행에 따르는 학생이없다는 것은 다행이다. 그렇다고 멋을 외면해야된다는 것은 아니다. 지성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어디까지나 개성미를 살리자는 거다.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나 혼자만 있을 때 그존재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공장에서쏟아져 나오는 마네킹의 우(愚)를 범하지 말자는 거다. 학생들이 학생다운 멋을잃지않는 한은 우리대학, 나아가서는 한국의 미래는 결코 불행하지 않으리라.

가정과 3년

강 춘 희

Hot Pants

다음:천고마비

수은주가 30도위로 올라가자 거리엔 뜨겁고뜨거운(?) 핫 스타일이부쩍 늘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있다. 유행이란 막을 수 없는 두서운 마력을 지니고있어 속히 때(Time)맞게 들어온 핫 팬츠가여러논란과 시비와 비난속에서도 나날이 늘어만가고 있다. 이 핫팬츠의착용에 대해서 「여자다운 멋이없다」「유치하다」 비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반대로 활동적이고 능률적이여서 미니보다 낫다는 사람도 있다. 거리에 입고 나선핫팬츠차림은 대개가 10대나 20대 초반의 쥬니어나 대학생들이라 그런대로 싱싱한 젊음을 불수있어 입음새 여하에따라 그리추하지는 않고, 차라리 속옷이 들여다 보이기 쉬운 아슬아슬한 기장의 마이크로 미니로입을바에야 핫 팬츠를 입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핫 팬츠란 이름그대로마음껏 짧게 입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므로 각선미를 생각하지않고 무조건 입는다면 보는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정도 자기분위기에 맞게 핫팬츠의 매너에 따라 입는다면 발랄하고 참신하게 보여진다. 더운때는 조금이라도 더 노출을 하고 싶고 모양보다는 편한것을 찾지만 최소한 남에게 실례를 하지않을 정도는 지켜야 될 것이다 항상 아름다워야 할 우리들의 옷차림새, 웃는얼굴로 보아야할 우리의옷차림이 보는이로 하여금 찡그리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그저우리는 누구든 유행에만치우치지 말고 센스있게잘 받아드려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싶다.

법학과 1년

명 광 수

인 코너

추억을 심어보시지 않으시겠읍니까?

기념촬영
출사촬영
카메라대여
} 여러분의 멋을!!

※ DP & E

※ 제대생에게 특별봉사

서 문 사 진 관

(시 청 서 쪽)

원 고 모 집

총학생회 학예부에서는 [illegible] 과 같이 「제대학보」 원고를 모집합니다

1. 대 상 : 교수 및 [illegible]
2. 종 류 : 논문, 산문 , 수필, 창작등
3. 기 간 : 1971년 9월 5일
4. 제 출 처 : 총학생회 부

1971년 8월

총 학 생 [illegible] 학 예 부